



BURBERRY

버버리의 신상품 페탈을 소개합니다  
T. 080 700 8800  
BURBERRY.COM

# Style

조선일보

MARCH 2014 vol.105



Sulwhasoo



©T&CO. 2014

A Lifetime Of Brilliance  
THE TIFFANY BRIDAL EVENT

전세계 최고의 러브 스토리를 담은 반지를 만나보세요.  
티파니의 다이아몬드 웨딩 링과 주얼리는  
당신의 결혼을 완성시키는 최상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 3월8일부터 4월 3일까지 아래의 티파니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 3/8 - 13 갤러리아EAST 롯데백화점 본점 부산본점 현대백화점 본점
- 3/15 - 20 롯데백화점 잠실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현대백화점 대구점
- 3/22 - 27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인천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 3/29 - 4/3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AK PLAZA 분당점 현대백화점 신촌점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서울 갤러리아 EAST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잠실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현대백화점 신촌점  
경기 AK 플라자 분당점 인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대구 현대백화점 대구점 부산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TIFFANY.KR



Breguet  
Depuis 1775

## Breguet, the innov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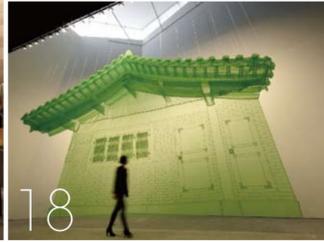
High frequency and high precision

A concentrated blend of horological innovations, the Classique Chronométrie 7727 with its balance fitted on magnetic pivots and operating at a frequency of 10Hz achieves an average rate of -1 to +3 seconds per day. Notably thanks to complete mastery of silicon properties and magnetism, this new milestone in the field of high-precision mechanical watchmaking embodies the spirit of innovation of Abraham-Louis Breguet. History is still being written...

[www.breguet.com/chronometrie](http://www.breguet.com/chronometrie)



브레게 직영 부티크 - 롯데 에비뉴엘 2층 +82 (0)2 2118 6480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2층 +82 (0)2 3438 6218 갤러리아 백화점 EAST B1층 +82 (0)2 6905 3571  
공식지정 판매처 - 신세계 본점 본관 B1층 그리니치 +82 (0)2 310 5382 신세계 센텀시티 2층 드로어씨클 +82 (0)51 745 1350 워커힐 면세점 B1층 +82 (0)2 450 6564  
신라 면세점 서울점 2층 +82 (0)2 2230 3868 신라 면세점 제주점 2층 +82 (0)64 710 7352 WWW.BREGUET.COM



18

42



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의 베스트셀러 윤조예센스. 199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연 1백70만 개, 1분마다 9개씩 판매되는 아이템이다. 세안 후 첫 단계에 발라 다음 단계 제품의 효과를 촉진하는 부스트 에센스 제품의 선구자로 피부에 건강한 윤기를 부여한다. 60ml 8만5천원대. 문의 080-023-5454



3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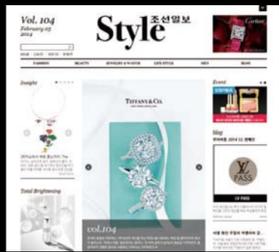
- 16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스마트 라이프**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요즘, 편견 없는 패션이말로 스마트 라이프스타일의 첫걸음이다.
- 18 **특별한 교감 그리고 공감, 2014년을 기념하라** 특별한 기념의 해를 맞은 문화계 소식을 알아둔다면 2014년을 흥미롭게 보낼 수 있다.
- 20 **IT'S SHOW TIME**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기능을 갖춘 워치 컬렉션 소개한다.
- 22 **NEW SPRING BAGS** 파스텔컬러부터 세련된 컬러 블로킹, 이국적인 무드, 견고한 형태까지, 2014 S/S 뉴백 리스트.
- 26 **SECOND SKIN** 해가 지날수록 거듭 진화하는 이번 시즌 베이스 신제품.
- 28 **SALUTE TO 'KING OF SPORTS'** '2014년 로얄 살루트 아카데미 리트 네이션스 컵에서 어우러진 스포츠와 스타일러스의 결합.
- 30 **MEN'S FINEST** 세련된 감성과 정제된 실루엣, 완성도 높은 디테일, 해가 지어도 지루하지 않고 입으면 입수록 애착이 가는 옷, 우영미가이코는 솔리드 옴므가 남성복 시장에서 견재한 이유다.
- 32 **소중한 이에게 '나눔'을 선물하는 사랑, 하나 더** 소중한 사람의 이름으로 작은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랑, 하나 더 캠페인의 매력.
- 34 **FRESH IMPACT 2014** 고유의 DNA와 감성으로 봄날의 여성을 위한 빅 패션 하우스의 트렌디한 스프링 룩.
- 42 **BEYOND THE TIME** 지난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4회 국제고급시계전시회 SIHH(Salon International de la Haute Horlogerie)에는 어김없이 마음을 들뜨게 할 놀라운 기능으로 중무장한 새로운 워치 컬렉션이 가득했다.
- 44 **HOROLOGICAL ARTS** 시계 자체를 '시계 예술(horological arts)'로 접근한 워치메이커, 스위스 보베 캐슬 매뉴팩처에 다녀왔다.
- 45 **ART OF SUIT** 완벽한 테일러링을 기미한 브리오니(Brioni)의 맞춤 수트.
- 46 **TIE TIPS** 색상과 패턴, 매듭의 조우가 만드는 넥타이의 견고한 매력은 남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언더다.
- 47 **ABSOLUTE ELEGANCE** 손목 위에서 빛나는 자태만으로 많은 이아를 함축하며 우아함을 완성하는 퍼르미자니의 워치 컬렉션.
- 48 **ILLUMINATE SKIN SECRET** 비디비치 스킨 일루미네이션 SPF 30 PA+++은 올봄 가장 기대되는 메이크업 베이스다.
- 49 **BLOOMING ESSENCE** SK-II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블루밍 에센스'는 빛으로 화사하게 피어나는 '블루밍 스킨'을 완성한다.
- 50 **THE DREAM OF MARRAKECH**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앙쟁로랑 코스메틱의 초대로 모로코 마라케시에 다녀왔다.
- 51 **SKIN LIGHT REFLECTION** 스스로 빛을 내는 라이트닝으로 진화한 2014년 YSL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티브 라인.
- 52 **EDITOR'S PICK** 기자들이 선택한 뷰티 아이템 리스트.
- 53 **PERFECT LIGHTENING DUO** 이미 20여 년 전에 혁신적인 아이템, 무수 애플리로 마법을 선보인 바 있는 YSL은 올해 가장 자연스러운 피부 빛을 살려주는 CC크림과 라이트닝 콤팩트를 선보인다.

# Style 조선일보

Issue.105 March 201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진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리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션은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2·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FENDI.COM

**FENDI**

**Jewel SWEET DARLING**

달콤하게 사르르 녹아내리는 사랑스러운 주얼리 컬렉션.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핑크 사파이어에 다이아몬드와 플라티늄을 세팅한 하트 펜던트 9백만원대, 핑크 사파이어를 세팅한 쉬어드 프롬 링 7백만원대 모두 **타파니**, 골드에 당수 진주를 세팅한 하트 루트 링 2백만원대 **타사키**, 다이아몬드와 핑크 사파이어를 차례대로 세팅한 스릴 링 9백만원대 **타파니**, 핑크 골드에 핑크 사파이어를 상투라처럼 세팅한 사파이어 레제드 카프다에 네크라스 1천9백만원대 **카르다에**, 달콤한 마카롱 모티브의 사랑스러운 워치 가격 미정 **부시넬**, 스퀘어 컷팅한 로즈 쿼츠, 에미사스트, 페인드 등 3가지 유색석을 캔다처럼 세팅한 블랙스드 엘레강스 컬러 믹스 링 3백60만원대 **타사키**, 별칭 모양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트 투사이드 네크라스 4백1만원대 **카르다에**, 에디터 **베기인**

포토그래피: 임정호

**Venue**

프리미엄 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TWG 티 살롱 & 부티크

미치 카페들의 밀렵처럼 변모한 서울에 우아한 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프리미엄 티 살롱이 생겨 눈길을 끈다. 싱가포르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TWG 티 살롱 & 부티크가 최근 서울 창동동에 문을 열었다. 도쿄, 런던, 홍콩, 두바이 등에 이어 29번째로 생겼다는 이 티 살롱은 TWG 최대 규모의 단독 건물에 자리를 잡았다. 이 브랜드의 공동 창업자인 타하 복딘 회장(tea tin)으로 장식한 벽,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깔린 바닥 등 여러모로 공들인 매장이다. '마시 공간'이라고 말했다. 8백여 종의 방대한 차 명단을 갖추고 있다는 이곳에는 1, 2층에 걸쳐 70여 석이 구비돼 있는데, 각종 차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를 우려내 만든 디저트와 요리 등 디저트미시식의 향연을 즐길 수 있다. 세련미 돋보이는 이 브랜드의 티 레이블(label)에 새겨진 1837이라는 숫자는 동서양 차 무역의 중심이 된 싱가포르에 상공 회안소가 설립된 연도를 뜻한다. 빠른 속도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TWG의 자랑은 독점 계약을 맺은 전세계 36개국에서 직접 가져온 최상품의 차잎. 특히 최상의 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지지 않은 전엽차(whole leaf)만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서울 부티크에서는 일차를 원하는 양만큼 달아서 구매할 수 있는 루스티(loose tea) 5백여 종을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다고, 문의 02-547-1837 에디터 **고성연**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삶을 감싸는 리빙 스텝 열기

삶의 철학을 일상에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리빙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서울 시내에 다채로운 개성의 라이프 스타일 스텝들이 들어오고 있다. 핀란드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는 마린메코와 같은 재기 발랄한 리빙 브랜드들이 옹기종기 들어서 있는 서울 가로수길의 예화랑 건물 3층

에는 최근 감각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라이프스타일 편집매장 SOP(www.sop.co.kr)이 개장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한 선물이라는 뜻을 지닌 이 매장은 친환경 소재와 디자인을 내세운 '슬로우 라이프 존', 아이의 정서를 어루만져줄 '키즈 룩 데코 존' 등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저마다 다른 특색을 지닌 브랜드의 제품을 만날 수 있다. SOP이 엄선한 브랜드들은 정감하면서도 멋스러운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구 프래그셋(Fragset)을 비롯해 합리적인 가격의 리넨 전문 브랜드 린넨탈레(Linetales), 프리미엄 향초로 유명한 조나단 워드(Jonathan Ward) 등이 있다. 앞서 가로수길에는 눈이 즐거운 리빙 스텝 샵터원(www.chapterone.co.kr)이 문을 열어 인테리어 예호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네덜란드 공업 디자이너 찰리 구다의 이리파파 꽃병, 프랑스 텍스타일 브랜드 런지 파피올라의 기본 좋은 패브릭 제품 등을 볼 수 있는 매장이다. 이 밖에 젊은 디자이너들이 이끄는 가구 브랜드이자 칸살팅 기업인 마누파쿰(www.manufakum.com)도 서울 상성동에 쇼룸을 열었다. 합판, 원목 등을 활용한 마누파쿰의 자체 브랜드 '파브리(Fabrick)'와 같은 실용적인 가구부터 일본의 생활 도구를 취급하는 브랜드 224포르셀린의 제품 등 저차와 감각이 돋보이는 소품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줄리언 오피(Julian Opie) 개인전)

우산을 쓰고 다니는 보행자, 핸드백으로 강조한 쇼핑객, 특징이 없어 오히려 친숙한 군중. 일상의 평범한 움직임들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집어내 조각과 회화의 영역을 넘나들며 단순하면서도 강렬하게 표현하는 런던 출신의 스타 작가 줄리언 오피(Julian Opie)의 전시가 열린다. 서울 소격동에 위치한 국제갤러리(www.kukjgallery.com)의 2관과 3관에서 오는 3월 23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한국에서 열리는 오피의 두 번째 개인전으로 비닐 페인팅과 LED 패널, 대형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소개한다. 특히 서울의 보행자들을 묘사한 새로운 회화 연작이 눈길을 끈다. 비범한 재료의 구사도 흥미롭지만 인공과 시물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높아 있는 정교한 미학적 결과물인 그의 초상화와 풍경화는 단순하면서도 섬세하며 에너지가 넘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1980년대 건축물이나 도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제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오피는 점차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인물과 장소,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드로잉 등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는 고유한 스타일로 미술계에 강력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앨런, 폴 등 본인에게 친숙한 주변인으로 유추되는 인물을 등장시킨 그의 초기 작품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미묘한 색채의 팔레트와 출중한 선묘로 강렬한 힘을 지니는다는 평을 들었다. 후자는 이러한 묘한 결합에 대해 결합한 제스처와 깊은 감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유희라고 표현했다.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을 찾은 줄리언 오피는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며 예술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에 대해 다시금 곱씹어 생각해 했다. 문의 02-735-8449 에디터 **고성연**



Walking in Sadang-dong in the Rain 2014 vinyl on wooden stretcher, 230X344.3cm © Julian Opie

사진: 개롱 국제갤러리



**Beauty WATERLY POWER**

하나, 토너만으로는 평강이 해소되지 않는다. 둘, 기능성 에센스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스터 제품이 필요하다. 셋, 스킨케어 단계가 많아지면 화장이 밀린다. 넷,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이 제일 중요하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제품은? 물처럼 촉촉한 워터 타입 에센스 생강제나 촉감은 미스트나 토너를 연상시키지만 고농축 안티에이징 에센스가 울고 갈 만큼 보습력이 풍부하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크리니크 이온 배터 에센스 로션**은 쉽게 건조하고 민감해지는 아시아 여성의 피부를 공격한 워터 타입 에센스. 브라이팅 성분을 담아 꾸준히 사용하면 안색이 점차 환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100ml 4만2천원대). **헤라 셀 에센스**는 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탄생한 '셀 바이오 플루이드 스크림'을 주요 성분으로 해 침투율이 높다. 미백과 주름을 해결하는 2중 기능성 인증을 받았다(150ml 1만9천). **SK-II 피이셀 트리트먼트 에센스**는 워터 에센스의 시초라고 불릴 만큼 출시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피이셀™ 성분이 90% 이상 농축되어 있어 피부결과 피부 톤, 탄력, 광채 등 갖가지 피부 고민을 해결한다(75ml 9만9천). **리키오스 마린 트리플 트리트먼트**는 수분, 미백, 탄력 등 3가지를 균형 있게 케어한다는 콘셉트로 탄생한 트리트먼트 에센스. 3가지 식물성 마린 플랑크톤이 그대로 농축되어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빠르게 돌게 하며, 떨어진 탄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효과적이다. 피부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다지고 싶다면 **에스티 로더 마이클로 발효 에센스**를 눈여겨보자. 극한 자연환경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에서 영감을 얻은 마이클로 발효 영양소가 자생력을 높여 유해 환경과 스트레스에 쉽게 자라지 않는 피부를 만든다(150ml 13만1천원대). 에디터 **이예진**



+822 3443 2323 prada.com

**PRADA**

Dane DeHaan  
New York, November 2013



화이트 셔츠, 체크 카디건 79만원, 1백70만원 모두 **항방 울모.**



베이스컬 컬러 블록 클러치. 34.5X24.5cm, 1백70만원에 **프라다.**



파스텔 블루 컬러의 페도라 38만원 **클레가르송 by 10 포르스 코모.**



올가을 블러드 크로켓을 장식한 타이프 타이 21만원 **7시엔.**



몽모그렘 여권 케이스 가격 미정 **루이비통.**



스테인리스 스틸의 우아한 에디션 라인인 **올스미스 by 룩스타카코리아.**



스트라이프 패턴의 실크 스카프 78만원 **브리오니.**

# for him Selection

멋지고 힙한 앞날을 예견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인 남자라면 올봄 산뜻하고 스마트한 디자인에 활동성까지 두루 갖춘 스타일을 추천한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이이온 가터대 7만5천원 **팝콘 by 바이커.**



건조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브리프 케이스. 41X29.5cm, 가격 미정 **구찌.**



매끈한 라인이 돋보이는 딥 그린 컬러 슈즈 2백89만원 **벨루티.**



뉴트럴 컬러의 레이시업 슈즈 1백68만원 **브리오니.**



소각줄 요인 벨트 18만원 **앤디슨 by 룩.**



우아한 디자인과 세 가지 색감의 501 시리즈에 **고드룬 스타일 펜 1백50만원에 7시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 스트라이프 백팩 33X41cm, 2백만원 **토즈.**

- 항방 울모 02-6905-3496
- 프라다 02-3218-5331
- 자방시 02-517-7560
- 루이비통 02-3432-1854
- 브리오니 02-540-4723
- 바이커 02-543-1270
- 구찌 1577-1921
- 벨루티 02-3446-1895
- 토즈 02-3448-8105
- 룬 02-548-4504
- 까르띠에 1566-7277
- 무이 02-3446-8074
- 생로랑 02-3438-7627
- 룩스타카코리아 02-501-4436
- 10 포르스 코모 02-3018-1010



비즈니스맨의 필수품인 명함 지갑 20만원에 **생로랑.**



V넥 패턴 니트 90만원대 **블랙 클리스 by 무이.**

HUGO BOSS Phone +82 2 515 4088 www.hugoboss.com



# BOSS

HUGO BOSS

BOSS Menswear  
서울 청담 플라그립 갤러리아 명품관 EAST 4F 현대백화점 본점 4F 현대백화점 코엑스점 7F 현대백화점 목동점 B1F 롯데백화점 본점 5F 롯데백화점 잠실점 5F 경기 AK 프라자 분당점 4F 현대 백화점 킨텍스점 2F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2F 대구 현대백화점 대구점 2F 대구 대백프라자 2F 부산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 5F 롯데백화점 부산점 MB1F



체크 패턴의 프리 실크 스카프, 더블 잠업 블루중 모두 가격 미정 **아노나**.



유행 벨, 스카프와 패셔너블 주머니  
앞으로 가는 케이스, **비버리** 2000



미니멀한 디자인의 캐주얼 컬러 토트백,  
27.5X16cm, 가격 미정 **마우미우**.



그라데이션한  
프레임이 세련된  
선글라스 40만원 **폴  
스미스 by 록스타카  
코리아**.



라피아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유니크한  
레이스업 슈즈 58만원 **스튜어트 와이츠먼**.

# for her Selection

따뜻한 바람이 스치며 얼어붙은 마음도 녹아내리는  
봄.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스타일 제안.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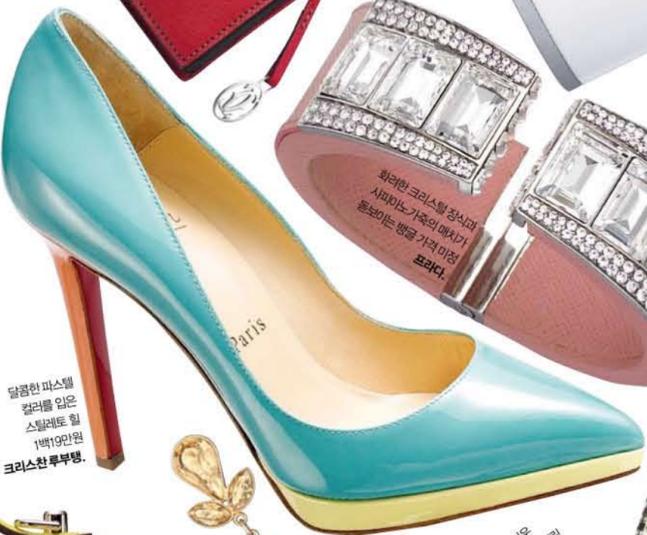
잔잔한 그래픽 프린트  
스커트 48만원 **발란타인**.



더블 C-코드를 앞면  
후면의 80%를 2000  
300만원 **비버리**.



스케줄 관리에 도움을  
줄 일력 **비버리**  
**비버리 by 비버리**.



달콤한 파스텔  
컬러를 입은  
스틸레토 힐  
1백19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화려한 크리스탈 장식과  
세미노가주의 메카가  
돋보이는 벨로 가격 미정  
**프라다**.



플라워 패턴이 사랑스러운 **헤드론** 케이스 488만원 **비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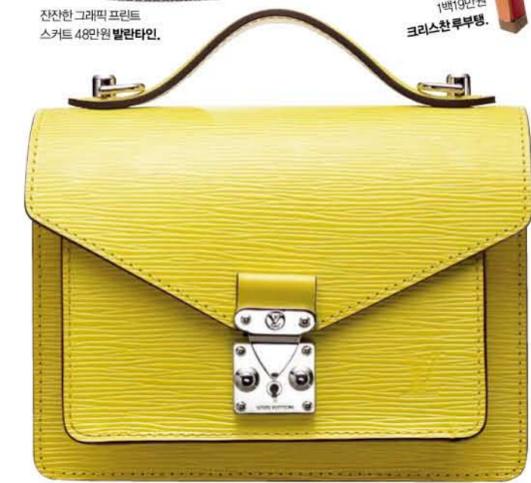
세팅패키지로 유망한  
이티 **비버리** 케이스로 **이비영**



트렌드 히트 아이템으로  
분위기 있는 **비버리**의 **이비영**  
21만5천원 **스외로브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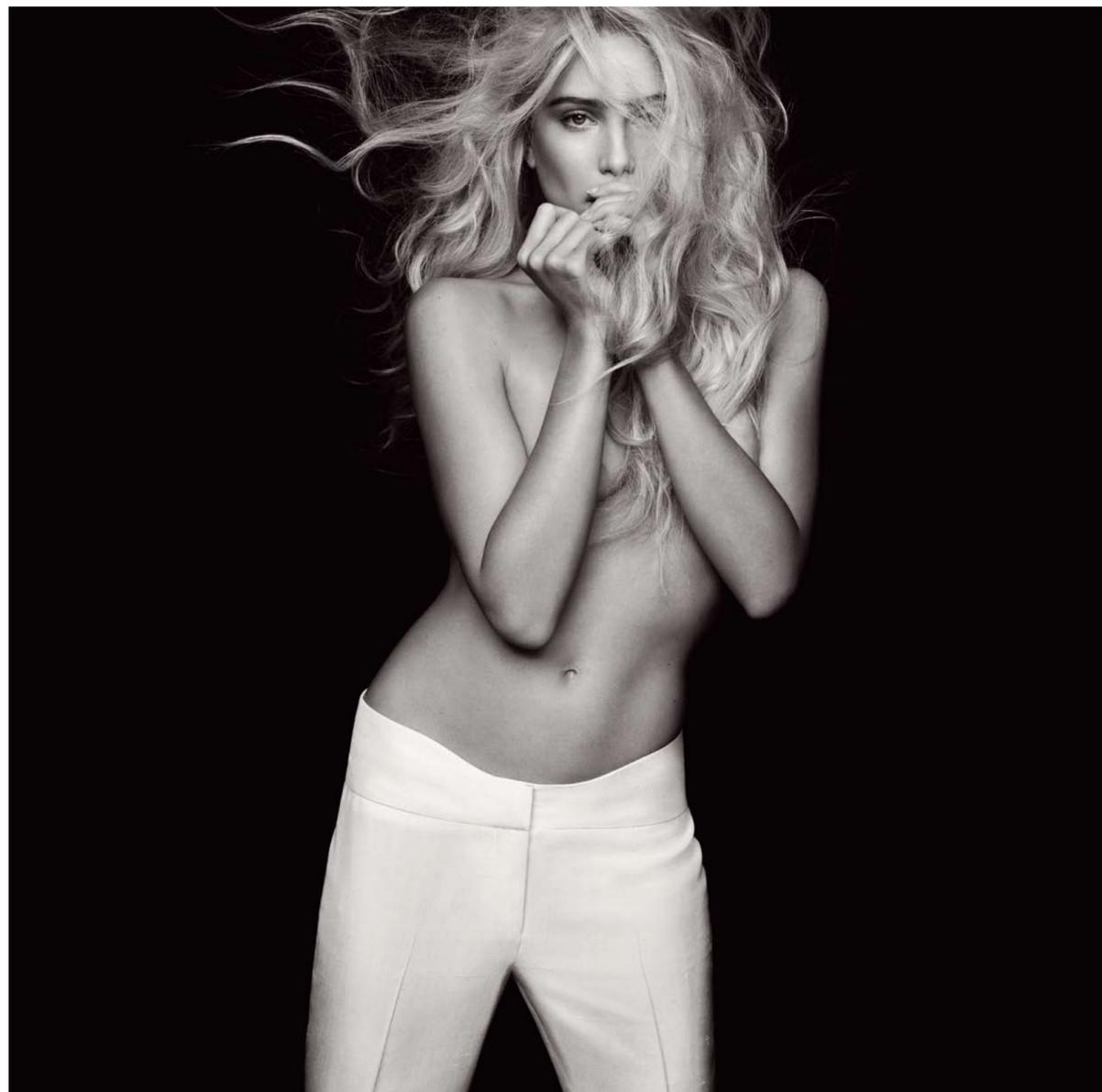
단정하면서도  
개성 있는 트위드  
재킷 2백18만원  
**마크 제이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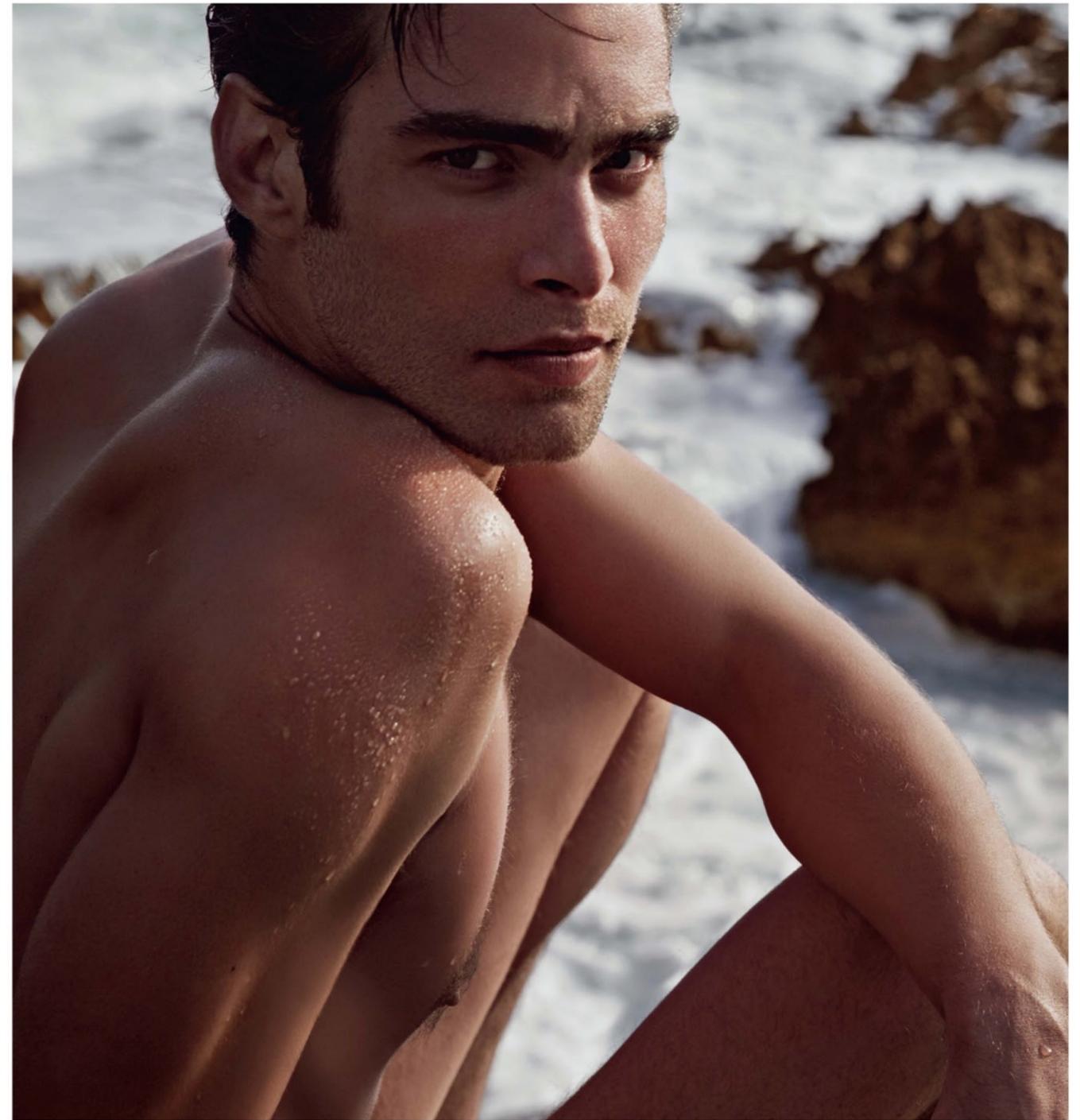
신뜻한 레몬 컬러의 몽소 BB 백, 15X19cm, 1백90만원대 **루이 비통**.

- 까르띠에 1566-7277
- 비버리 02-543-1270
- 비버리 02-3485-6536
- 프라다 02-3218-5331
- 아노나 02-3438-6070
- 고야드 02-3448-4778
- 마우미우 02-3218-5341
- 스튜어트 와이츠먼 02-3444-1730
- 록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 발란타인 02-545-0840
-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 루이 비통 02-3432-1854
- 마크 제이콥스 02-545-5981
- 스외로브스키 02-3395-9096

WWW.AGNONA.COM



AGNONA  
est. 1953 ITALY



kumbi cosmetics 080-900-8888

BVLGARI

AQVA  
A M A R A



#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스마트 라이프

모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20대 후반의 김혜정 씨는 귀퉁이 종이 내용, 그리고 책장을 넘길 때마다 접하는 특유의 감촉과 소리를 몹시도 사랑하는 종이 책 옹호자다. 유난히 책의 물질성에 애정을 쏟아온 그녀가 최근 확연히 달라진 면모를 드러냈다. 일단 중고 아이폰을 판 돈에 약간 더 보태 태블릿 PC 아이패드 에어를 마련했다. 원래는 아이패드 미니를 선호했지만 새로 나온 에어는 미니와 무게 차이가 별로 없었기에 망설임 없이 골랐다. 워낙 책을 많이 보는 만큼 먼저 한 일은 교보문고 e북을 차곡차곡 디지털 서재에 저장하는 일이었다.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채우듯, 은근한 재미가 스뽕했다. 필요한 부분은 형광 펜으로 표시해놓으니 언제 어디서라도 기획 아이디어에 활용할 수 있을 듯했다. 여기에 입소문이 파다하게 난 브랜드인 로지텍의 무선 키보드를 사서 연결하니 어딜 가나 모바일 오피스를 대동하는 셈이 됐다. 데이터 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비책도 세심하게 마련해줬다. 국산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무제한 요금 패키지와 함께 저렴하게 구매해 와이파이가 존이 아닌 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아이패드를 꺼내 들 수 있는 밀거름을 다져놓은 것이다. 무제한 요금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에 스마트폰을 단말기 삼아 유선이나 무선 인터넷 없이도 얼마든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테더링(tethering)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스케줄을 관리하고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도구로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무료 앱 '숨노트'도 내려받아 설치해두니 이처럼 편한 세상이 없는 듯했다. 이 메모 앱은 1GB의 무료 첨부 공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 노트에 첨부하는 스케치 기능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태블릿 PC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e메모장보다 재미도 더 쓸쓸하고 업무 효율성도 월등했다.

## 경계의 벽이 허물어지는 '빅 블러' 세상, '디지털'은 어렵다는 편견을 버려라

사무실과 바깥 세상, 집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이러한 변화는 김 씨로 하여금 디지털 세계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끔 만들었다. 경계의 벽이 무너지면서 세상을 이루는 요소들이 융화돼 가는 현상을 가리키는 '빅 블러(Big Blur)' 세상의 논리를 터득하게 된 것이다. 빅 블러 시대에는 공간의 경계만 무너지는 게 아니다. 시는 자와 파는 자의 경계, 상품이 될 수 있는 대상의 경계, 스마트폰,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기기들 간의 경계, 현실과 가상의 경계... 수많은 경계의 틀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미래학자 피터 힌센은 <뉴노멀>이라는 저서에서 기술과 경영의 경계가 강도 높게 뒤섞이는 시대를 예고하며 지난 25년의 세월이 소비자에게 첨단 기술을 제공한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25년은 모든 소비자가 일상에서 기술을 '똑똑하게' 사용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른바 '뉴노멀(the new normal)'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의 급물살에 휩쓸려 정신을 차릴 틈이 없더라 저항하는 이들도 꽤 많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들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평계를 대치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손쉽고 친근한 데다 실속과 재미까지 갖춘 서비스와 상품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나친 편견만 지니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데 따른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그다지 많이 유발되지는 않는다. 물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고 해도 생산적인 몰입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디지털 요소를 굳이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 필요는 없다. 하지만 모두가 당연시하는 '뉴노멀'의 흐름에서 심하게 도태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면 적어도 편견의 파도에 스스로 휩쓸릴 이유도 없지 않을까.

## 스포츠와 피트니스계의 신기원을 열고 있는 '뉴노멀' 기기들

최근 온 국민을 환희와 실망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지구촌 축제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나 후원 기업들의 기술력 경쟁은 더 이상 따끈따끈한 뉴스거리가 아니다. 체조 종목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가 프리 스타일 모굴에 출전한 최재우 선수에게 공중회전 동작 자세를 촬영해 교정법을 전수하는 모습 같은 건 흔하다흔한 광경이 됐다. 미국 프리 스타일 스키 팀은 'Coach's Eye'라는 앱을 활용했다. 공중회전 동작을 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비디오 촬영을 한 뒤 분석하고 전송하는 방법인데, 패트릭 드닌(Patrick Deneen)이라는 선수의 아버지이자 코치인 팻 드닌은 "우리들의 지도 방식을 바꿨다"면서 이 앱을 예찬했다. 슬로 모션 카메라를 이용해 경쟁 상대의 동작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술 교정에 보탬이 되는 '우버센스(Ubersense)'는 미국과 캐나다 대표 팀이 애용한 앱이다. 일상에서도 디지털 파워는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의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이미 상당수의 팬을 확보한 조본(Jawbone)의 UP 리스트밴드에 이어 얼마 전 한국 시장에 진출한 핏빗(fitbit) 등 스마트 헬스케어 브랜드들은 이러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핏빗은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액티비티 트래커(1일 활동량을 측정, 기록하는 기기) 시장점유율 67%를 차지한 브랜드다. 대표 제품인 스마트 팔찌 핏빗 플렉스(fitbit flex)는 일일 누적 걸음 수, 칼로리 소모량, 이동 거리, 수면 효율 등을 기록해주는데, 스마트폰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팔찌 위에 장착된 5개의 LED 램프는 목표를 설정해두면 달성률을 표시해준다. 가볍게 손목에 차거나 클립형으로 옷에 끼울 수 있는 핏빗의 제품은 튀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패셔니블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WEARABLE

"디지털 시대의 유리잔은 절반밖에 차지 않았다." 미래학자 피터 힌센은 인류의 디지털 여정이 절반을 지났을 뿐이라며 나머지 절반의 여정에서는 디지털이 '새로운 일반화', 즉 '뉴노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렇다고 아날로그에 대한 애정을 애써 버릴 필요는 없다. 선입견을 버리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자연스러운 어우러짐을 체험하는 건 생각보다 더 즐겁고 편안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요즘, 편견 없는 시선이야말로 스마트 라이프스타일의 첫걸음이 아닐까.

##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힘

이러한 스마트 기기의 인기는 무엇보다 편하고 재미있는 속성, 그리고 '소통'이 가능한 덕분일 것이다. 생활 속 사물들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바야흐로 사물들이 실시간으로 사람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심지어 생방향의 '소통'까지 시도하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얘기다. 웨어러블 기기는 아니지만 오랄-비 블랙 7000과 같은 진동 칫솔도 '소통의 마법'으로 부각되는 사례로 꼽힐 수 있다. 칫솔질은 너무 세게 해도, 너무 약하게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어를 잘 못하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할 때 이 진동 칫솔은 제대로 이를 닦고 있는지를 액정 화면을 통해 알려준다. 잇몸에 지나친 힘이 가해지면 본체에 붉은 램프가 켜지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또 운동화에 센서가 달려 거리, 속도 등 다양한 지표를 측정해주는 나이키+와 같은 제품도 나와 있다. 이처럼 간편하면서도 실용성 돋보이는 생활 밀착형 기기도 있지만 여기에 감성을 더한 소통은 더욱더 매력적이다. 필립스가 선보인 스마트 조명 '휴(hue)'는 인터랙티브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에 온기를 더한 예다. 저전력, 고효율, 친환경, 그리고 긴 수명까지 갖춘 이 LED 조명은 전구 색상과 상황에 맞도록 변화무쌍하게 바꿀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점등과 소등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일정 시간만 켜지게 하는 타이머 기능 등 온갖 지능적인 기능을 뽐낸다. 안드로이드 폰이든 아이폰이든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로 간편하게 원격 제어할 수 있다. 감성 소통이라는 이점이 있으니 지구촌의 사용자들이 휴와 연동할 수 있는 앱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공유하는 커뮤니티도 발달하게 운영된다. 서울 안구정동에 위치한 외인 바 겸 레스토랑인 라바트는 휴를 설치해 그날의 감성과 분위기, 또는 음악에 따라 조명의 색이 바뀌는 카멜레온 공간을 실현하고 있다.

## '동모스마트쿠스의 진화는 인간의 창조력까지 아우를 수 있을까?

고도의 지능에 감성을 더한 소통까지 가능케 하는 '스마트 & 인터랙티브' 생활 방식이 보편화되는 뉴노멀의 시대에는 과연 어떤 일까지 가능해질까? 일단 스마트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인간의 손발'을 자유롭게 한다는 장점이 핵심 화두인 듯하다. 제임스 윌슨이라는 학자의 글을 통해 '웨어러블 혁명'에 대해 다른 경영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13년 9월호를 참조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손목에 키보드와 디스플레이를 프로젝션 방식으로 보여 주는 첨단 암 밴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삼성전지에서는 스마트 워치인 '갤럭시 기

어블, 구글에서는 '구글 글래스'를 이미 선보였고, 애플에서도 조만간 '워치'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견은 엇갈린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굳이 시계까지 필요하다는 회의론자도 있는가 하면 낙관론자도 있다. 한 삼계인 브랜드 관계자는 "파티를 많이 주최하다 보니 손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게 느껴진다"며 "외인 잔을 들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잔을 깨뜨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스마트 워치가 정말 기다려진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윌슨은 인간의 생리학적 변화 감지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과 수량화된 피드백 전달 기능을 갖춘 웨어러블 기기의 역할을 가리켜 '피지오리틱스(physiolytics)'라고 불렀다. 윌슨을 비롯한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를 통한 '빅 데이터' 환경이 구축되면 직장에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생산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예컨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피로도'를 모니터링해주는 센서가 작동해 과로에 대한 견제의 신호를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을 하루에도 1백 번도 넘게 확인해야 하는 직장인의 일꾼들에게는 낭비하는 시간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는 것이다. 전기 생리학자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심지어 정신의 영역에까지 파장을 끼칠 수 있을 듯하다. 2009년 세상에 선보인 EEG(뇌파 전위 기록) 기능을 활용한 멜론 헤드밴드는 그 선구자다. 이 머리띠를 하면 뇌파 추적 기능이 작동해 인간이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진화를 거듭해 저마다 가장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들을 알아낼 수 있는 '혁신이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뉴노멀 시대에 확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

## 경계 너머를 보는 유연한이야말로 진정한 진화

그러나 이해관계에 얽힌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굳이 스마트 세상의 미래를 미리 걱정하거나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기술의 발달이나 한계는 지구 인간의 예측을 벗어나기 마련이니까. 그보다는 스트레스 없이 기운을 북돋워주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디지털 라이프'를 즐기면 된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벽을 세우지 않고 그냥 열린 마음으로 '경계 너머를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환호기를 맞아, 어쩌면 '고루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풍경화에 부쩍 몰입하면서도 그 풍경을 아이폰을 활용한 멋진 드로잉 스틱으로 풀어내는 반전을 자연스럽게 펼쳐내는 영국의 위대한 노화가 테이비드 호크니처럼 말이다. 장르, 도구의 경계는 물론 세대나 나이 따위의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의미 있는 즐거움에 심취하는 호크니의 말년이야말로 인간의 바람직한 진화를 투영하는 게 아닐는지. **이대리 고영진**



# 특별한 교감 그리고 공감, 2014년을 기념하라

기념일은 연인 사이에만 쟁기는 것일까? 올해 특별한 기념의 해를 맞은 문화계 소식을 알아둔다면 2014년을 더욱 흥미롭게 보낼 수 있다. 특히 윌리엄 셰익스피어 탄생 4백50주년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탄생 1백50주년은 전 세계를 축제의 분위기로 물들이는 가장 큰 행사이다.

## 셰익스피어는 위대했다

셰익스피어 탄생 4백50주년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문제다. 셰익스피어를 식민지 인도와도 바꿀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영국인의 편애를 받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해를 맞아 영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영국 현지의 관련 행사부터 전한다. 영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은 참조하시라. 셰익스피어스 글로브(Shakespeare's Globe) 극장에서는 4월 23일부터 〈햄릿〉 월드 투어 공연을 한다. 극장 방문객들은 공연뿐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런던에서 보낸 생애와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전시도 감상할 수 있다. 빅토리아 & 앨버트 박물관에서는 2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셰익스피어: 우리의 위대한 극작가(Shakespeare: Our Greatest Living Playwright)〉 전시가 열린다.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셰익스피어의 도약과 상상력을 조명하는 전시이기 에 주목할 만하다. 1602년, 셰익스피어의 작품 〈십이야〉가 초연된 미들 템플 홀(Middle Temple Hall)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1570년 완공된 이후 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셰익스피어 만이 아니라면 당시 킨 엘리자베스 1세의 참석과 함께 상연된 공연의 향수를 듬뿍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방문 전 예약은 필수이며, 운치 있는 극장에서 먹는 낭만적인 점심 식사도 주문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흥미진진한 공연이 이어진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가장 화려하면서도 강렬한 작품으로 알려진 〈맥베스〉가 3월 8일부터 23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그 포문을 연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장군 맥베스가 왕이 될 것이라는 세 마녀의 예언과 아내의 부추김에 왕을 살해하고 자신마저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현대인의 자화상과 다르지 않다. 인격이 고결하지만 욕망에 빠져드는 맥베스는 박해자, 욕심에 가득 차 있다가 불안감에 시달리는 맥베스의 부인은 김소희가 맡았다.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은 〈리어왕〉으로 대한민국 연극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병준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이니만큼 더욱 신뢰가 간다. 비극이 싫다면 희극은 어떤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작품을 정의신 연출가가 유머러스하게 각색해 희극 〈노래하는 사일룩〉으로 변모시켰다. 고리대금업자 사

일룩을 통해 드러난 종교와 인종 문제가 현대에도 여전히 잔재한다는 것이 조금은 씁쓸하겠지만 말이다(4월 5~20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희극도 좋고 비극도 좋다면 〈템페스트〉를 추천한다. 셰익스피어의 후기 걸작으로 손꼽히는 이 작품은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형제의 배신과 복수, 사랑이 펼쳐지는 신비로운 작품이다(5월 9~25일). 상반기에 연극으로 셰익스피어를 만끽했다면, 하반기에는 오페라로 만나는 것은 어떨까?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오텔로〉가 공연된다. 스산한 가을밤에 어울리는 비극을 상연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프랑스의 작곡가 구노의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젊은 연인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와 서정적 음악이 절묘하게 어우러졌다는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17세기 이탈리아 베로나의 모습을 섬세하게 재현했으며, 사랑에 빠지는 순간과 긴장감 넘치는 싸움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무술 감독과 안무가가 참여한다. 독일 함부르크 국립극장의 주역으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이하영이 줄리엣을, 테너 프란체스코 테무로가 로미오 역을 맡는다. 〈오텔로〉는 베르디의 장엄한 음악과 어우러지는 대작인데, 미국 달라스 오페라의 음악감독을 역임한 세계적인 지휘자 그레임 켈킨스가 지휘를 맡고 오텔로 역에는 테너 안토넬로 팔롬비, 테스데모나 역에는 소프라노 세레나 파르노키아가 합류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한 편도 읽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무대 위의 연극, 오페라와 함께 셰익스피어가 고민했던 인간의 선과 악을 다시금 생각해보자.

## 차리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클래식 음악계도 셰익스피어 탄생 기념 공연에 질 수 없다는 분위기다. 올해는 독일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음악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탄생 1백5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슈트라우스는 화려한 관현악과 정밀한 앙상블이 특징인 교향시의 거장이다. 서울시향에서 세 가지 슈트라우스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첫 번째 연주회 '영웅의 생애'는 1월 9일에 정명훈의 지휘로 호평 속에 이미 막을 내렸다. 5월 9일에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두 번



째 연주회 '슈트라우스와 오보에의 밤'이 열린다. 슈트라우스는 몰라도 〈차리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모르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도입부에 쓰이며 깊은 인상을 남긴 이 작품은 웅장한 악상과 탁월한 관현악 기법으로 이루어져 교향시 최대의 걸작으로 불린다. 연주회 전반에는 슈트라우스의 '오보에 협주곡'을 유명 오보이스트 프랑수아 뮐러의 협연으로 감상할 수 있다. 12월 12일에는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과 첼리스트 지안 왕의 협연으로 슈트라우스의 '돈키호테'를 연주한다. 세르반테스의 명작 〈돈키호테〉를 10개의 변주곡으로 풀이한 작품으로 풍차와 싸우는 돈키호테를 음악으로 감상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독일 현지에서도 관련 행사가 열린다. 슈트라우스가 태어난 뮌헨에서는 탄생 1백50주년 축하 음악회에서 '메타모르포젠', '돈 후안', '장미의 기사' 등의 작품이 연주된다(6월 9일/뮌헨 국립극장). 슈트라우스가 40년 이상 머물다 생을 마감한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 지방에서는 탄생 축하 여름 축제가 열린다. 6월 11일 개막해 19일에 막을 내린다.

## 풍성한 생일 잔치를 여는 미술관들

미술계에서도 생일 잔치는 이어진다. 2014년은 미술가 박수근 탄생 1백 주년, 한국자수박물관 개관 40주년, 삼성미술관 리움 개관 10주년,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 그리고 일본 도쿄의 모리 아트 뮤지엄 개관 10주년이다. 먼저 국민 미술가로 칭송받는 박수근의 탄생을 축하하는 〈박수근 탄생 1백 주년 기념〉전이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다(3월 16일까지). 이번 전시가 특별한 것은 소장가 수십 명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박수근의 작품들까지 포함된 총 1백20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고전이라는 점이다. 박수근은 골목길 풍경, 장터의 여인, 아기를 업은 소녀, 할아버지와 손자 등 서민의 일상 모습을 주로 그렸는데, 이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을 그려야 한다는 미술가로서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이다. 오는 6월에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에서 또 다른 전시가 이어진다.

한국자수박물관에 기본 적이 있는지? 1974년 개관한 한국자수박물관은 하동화 관장의 걸



택션으로 이루어진 의미 깊은 공간으로 특히 해외 전시를 통해 다수의 만이아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에서 한국자수박물관 개관 40주년을 기념하는 〈보자기와 주머니〉초청 전시가 열리고 있다. 한국자수박물관 하동화 관장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시절부터 보자기의 아름다움에 반해 컬렉션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규방 문화를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은 전설적 인물이다. 우리나라 엔틱 보자기의 아름다움은 일본에서 더욱 유명세를 지르고 있는데, 20만 명 정도의 일본인(재일교포 포함)이 직접 보자기를 만들거나 컬렉션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국자수박물관이 그간 일본에서 30여 회 전시회를 개최하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발전시킨 예술적으로 섬세한 자수 문화를 알려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태원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 삼성미술관 리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아트 스펙트럼 2014〉와 〈리움 개관 10주년 기념전: 교감〉을 선보인다. 〈아트 스펙트럼 2014〉는 한국 작가들의 전시로, 외부 큐레이터와 협업해 선정한 작가 10명의 작품을 전시한다(5월 1일~6월 30일). 〈리움 개관 10주년 기념전: 교감〉은 한국의 고미술과 국내의 현대미술을 포괄하는 리움의 소장품을 한눈에 만날 수 있는 전시다(8월 23일~12월 28일). 20년 전에 광주비엔날레가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창설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는 '타전을 불태우라(Burning down the House)'로 확정되었다. 이는 1980년대 초반 가장 인기 있던 뉴욕 출신 진보주의 그룹 '토크 헤즈(Talking Heads)'의 앨범 수록곡 중 가장 잘 알려진 곡의 제목일 뿐 아니라,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런던 테이트 모던의 제사카 모건 큐레이터가 총감독을 맡았다. 또 창설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 '달콤한 아이슬, 1980 그 후'도 별도로 진행된다.

## 지젤과 춘향

발레만큼 모든 예술이 집약된 장르가 또 있을까? 음악과 문학, 미술과 패션, 그리고 무용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발레의 매력을 모르는 이들이 많이 아쉽다.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발레 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창립 멤버였던 문훈숙 단장이 심혈을 기울여 레퍼토리를 준비했는데, 먼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LG아트센터에서 모던 발레 〈멜티플리시티〉가 공연된다. 바흐의 음악에 맞추어 천재 안무가 나츠 두야토의 현란한 몸짓이 발레 작품으로 탄생된다. 6월 13일부터 17일에는 클래식 발레 〈지젤〉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다. 〈지젤〉은 음악가 아돌프 야당의 감미로운 음악과 무용수들의 애절한 연기력이 어우러지는 가장 아름다운 발레 작품이다. 사할 처녀 지젤이 귀신이 되어서도 연인을 사랑으로 보호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처녀 귀신 윌리들의 군무가 유명하다. 패션 하우스의 파티도 화려하다. 2014년은 루이 비통은 창립 1백60주년, 마세라티는 창립 1백 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루이 비통의 경우는 마침 〈시티 가이드〉출간 15주년이라 더욱 의미 있다. 처음 〈시티 가이드〉서울 편이 출간되어, 판매금을 유니세프에 전달하기도 했다. 1854년 그레이 트리아농 캔버스 스트럼그를 선보이며 여행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선사한 루이 비통다운 행보인 듯하다. 마세라티의 〈1백 주년 기념 책자〉는 '한 세기의 역사, 마세라티(Maserati - A Century of History)'라는 제목으로 회사 연혁, 모델 라인업, 모터 스포츠 등 세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마세라티의 1백 년 역사를 연대기로 집필했다. 가장 기대가 되는 행사는 오는 9월 모데나에서 열리는 드라이브와 레이싱 트랙 세션으로 지난 1백 년간 전 세계에 선보인 2백50여 종의 다양한 마세라티 모델을 총집결해 3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포드 머스탱 역시 탄생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머스탱을 선보였는데, 머스탱 최초로 탑재된 계기판상의 4.2인치 LCD 스크린을 통해, 연비를 비롯한 차량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운전자는 드라이브 스타일에 맞추어, 뉴 머스탱에 장착된 6단 셀렉트 시프트 자동변속기를 통해 완전 자동 또는 매뉴얼 변속에 따른 주행을 선택할 수 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는 말이 있다. 온 마음을 바친 사랑도 작은 오해로 사라져버리는데,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2014년의 다채로운 생일 파티에 참석하여 풍성한 문화의 선물을 만끽해보자. 이는 만큼 즐길 수 있는 법이다. **글 이소연**(사진 미술에 중독되다, 서울, 그 카페 후타리의 자자)

# it's show Time

믿을 수 없이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 하이엔드 위치의 물결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 목소리를 내는,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기능을 갖춘 위치 컬렉션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라도 다스타 200** 1962년 출시된, 세계 최초의 움직임이 나지 않는 시계인 '다이아 스타'를 재해석한 컬렉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사용했으며 60시간 파워 리저브, 2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44mm의 볼륨감 있는 디자인으로 동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다이얼이 드러바텍하다. 2백28만원대.

**해밀턴 카키 X-팩트**를 브랜드 탄생 1백 20주년을 기념해 혁신적인 항공 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선보인 위치 컬렉션. 세련된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디자인은 기계식 위치계 대한 남성들의 로망을 북돋아준다. 미터판과 아드-파우드변으로 단위를 변환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을 담아 더욱 흥미롭다. 2백17만원.

**글라이시 에어엔 컬렉션** 항공 위치계 관심 있는 남성이라면 24시간 인덱스가 특징인 이 위치계 눈금이 갖는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금씩 디자인을 수정하면서 시대가 말하는 다양한 버전의 에어엔을 선보인 글라이시의 1963년 초기 모델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했다. 블랙 나토 스트랩이 매력적이며 다이얼 사이즈는 42mm, 42시간 파워 리저브를 갖춘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3백40만원대.

**해밀턴 재즈마스터 오토 크로노 H21** 해밀턴을 좋아하는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컬렉션인 재즈마스터 오토 크로노 위치계. 세련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긴밀한 라인과 세련된 스틸 소재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다. 42mm 케이스에 100m 방수 기능, H21 무브먼트를 장착한 모델이다. 2백26만원.

**라도 센트릭스 크로노그래프** 순수한 원형 모티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센트릭스 크로노그래프 위치계. 클래식하고 유연한 곡선미, 정제된 디자인에 세련된 실루엣까지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모델이다. 밴드 폭이 좁아지는 날렵한 디자인의 브레이슬릿은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 편안함을 선사한다. 44mm의 볼륨 있는 다이얼로 오토매틱 위치계를 처음 구매하는 남성에게 추천할 만한 디자인이다. 2백17만원.

**모리스 라크르와 폰토스 S 다이아** 600m 방수 기능을 갖춘 전문가를 위한 폰토스 S 다이아. 레드 디자인의 빈티지한 감각을 가진 다이아 위치계로 가진 물속에서도 시간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디자인했다. 9시 방향에 헬륨 이스케이프 밸브 시스템을 갖췄다. 3백30만원대. 에디터 배미진

해밀턴 02-3149-9593 모리스 라크르와·글라이시 02-2192-9628 라도 02-3438-6049



STUART  
WEITZMAN



**Spring Breeze**  
 한입 베어 물고 싶은 마카롱을  
 연상시키는, 봄을 위한 컬러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라다 두블레 백  
 인감과 결감이 모두 가죽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레몬 컬러 토트백,  
 37X27cm 3백13만원. 자넬라토 포스티나 by  
 엘브르스타일 1950년대 이탈리아 우체부가  
 사용하던 솔더백에서 영감을 얻은 포스티나  
 백을 이번 시즌 부드러운 파스텔컬러로  
 선보인다. 30X22cm 1백8만원. 사넬 캔버스  
 체인 백 사넬의 아이코닉한 클래식 백의 캔버스  
 소재 버전. 봄으로 직접 그린 듯한 프린트를  
 입혀 신뜻하게 거듭났다. 31X21cm 가격  
 미정. 바버리 롤리워 더어 스킨 패럴 수작업으로  
 완성한 꽃 장식과 비대칭 형태가 특징인 클러치  
 백, 32X17cm 2백30만원. 비버안 웨스트우드  
 오피오 사피아는 선명한 토마토 컬러가 눈에  
 띄는 미니 사이즈 솔더백. 스트랩은 탈착이  
 가능해 클러치 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18X12cm 88만원.

bally.com

# new Spring bags

봄기운이 서서히 물러오며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이때, 백화점 쇼윈도에 등장한 신상 가방을 공략할 계획이라면? 파스텔컬러부터 세련된 컬러 블로킹, 이국적인 무드, 견고한 형태까지 다채롭게 선보이는 2014 S/S 뉴 백 리스트를 참고할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xotic Texture**  
 더욱 대담하고 관능적으로 돌아온 이국적인 텍스처의 활약을 기대하라.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MCM 리틀 베로나 카사벨 파이론 소재와 멜로 컬러 가죽이  
 상큼한 조화를 이루는 사넬 백, 30X29cm 1백15만원. 크메이지 리저드 엠보  
 프린트 솔더백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형태와 도마뱀가죽 프린트가 아우라진  
 실용적인 솔더백, 33X35cm 1백90만원. 구피 누보 백 과감한 프린지와  
 견고한 병부 장식, 광택이 도는 고급스러운 파이론이 특징인 솔더백,  
 31X25cm 5백64만원.



**Color Blocking**  
 두 가지 이상의 컬러가 모던하게 믹스된  
 컬러 블로킹에 주목할 것.

(위부터 차례대로) 에르메스 롤리드 백 로고나 장식,  
 디테일은 배제하고 부드러운 형태와 캔버스, 가죽의 미니멀한  
 조합으로 완성한 토트백, 36X31cm 8백만원대.  
 토즈 셀라 백 컬러 대비가 돋보이는 스트라이프 패셔너  
 견고한 형태가 눈에 띄는 미니 사이즈 셀라 백,  
 30X21cm 2백만원대. 콜로에 베일리 백 유연한 형태가  
 들었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 이 백은 한쪽 면은 진한  
 녹색을, 다른 한쪽은 연두색을 입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준다. 27X21cm 2백85만원.



토즈 02-3438-6008 에르메스 02-544-7722  
 콜로에 02-543-1737 MCM 02-540-1404  
 크메이지 02-3438-6212 구피 1577-1921  
 프라다 02-3218-5331 엘브르스타일 02-547-9700  
 사넬 02-543-8700 바버리 02-3485-6536  
 비버안 웨스트우드 02-3438-6292

스타일링: 이다비 이영진



# BALLY

SWITZERLAND



**셀린느 타이 백** 라가자와 트리페즈에 이어 셀린느의 새로운 클래식 백의 자리를 넘보는 이 백은 양면을 담은 카리안 가죽 패널과 핸들 부분의 견고한 매듭 장식으로 세련된 멋을 드러낸다. 사이드 패널을 양쪽으로 펼쳐가나안으로 잡아넣어 두 가지 모양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34X28cm 3백만원대, 문의 02-3440-1547



**클림보 비아 델라 스피가 웰스트리트 소프트 백** 1962년 탄생한 웰스트리트 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소프트 백. 기존의 단단한 가죽을 유연하게 변경하고 범부 핸들은 심플한 가죽으로 교체해 시즌을 줄였으며, 탈착 가능한 스트랩을 달았다. 33X26cm 2천5백만원대, 문의 070-7130-9200



**릴프 로렌 소프트 리키 백** 릴프 로렌의 아내이자 유즈인 리키 로렌 여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릴프 로렌의 대표작인 소프트 리키 백을 소가죽으로 부드럽게 가공한 소프트 리키 백. 이번 시즌 부드럽고 달콤한 파스텔컬러와 미니 사이즈로 선보인다. 26.5X21cm 2백만원대, 문의 02-545-8200



**루이 비통 파르나세아 컬렉션 알마 PPM** 고대 그리스의 파르나스 언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컬렉션은 최고급 송아지가죽에 루이 비통의 아이코닉한 알마 디자인을 적용했다. 본 다운된 핑크 컬러가 클래식한 우아함을 더하며, 스트랩이 내장되어 있어 크로스백으로 연출할 수 있다. 26X21cm 4백만원대, 문의 02-3432-1854



**렌디 투 주르 백** 2012년 프리 컬렉션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렌디의 두엄리움을 대변하는 아이코닉한 백으로 자리 잡은 투 주르 백. 이번 시즌 콘셉트인 그래픽적인 프린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옐로, 핑크, 톤온톤 컬러 블록 버전이 이르기까지 최상의 컬러 팔레트를 내세운다. 36X27cm 3백82만원, 문의 02-2056-9022



**생로랑 베이비 삭드 주르 스퀘어** 행태의 미니엄한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삭드 주르의 미니 사이즈 버전. 2개량 내부는 스웨이드로 처리해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가운데 지퍼 주머니가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실용성을 더했다. 울퉁 시그처 컬러인 핑크가 눈부시다. 22X18cm 2백40만원대, 문의 02-3438-7627



**저항시 핀도라 박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핀도라 백의 새로운 버전으로, 이탈리아 건축가 조 폰티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견고한 형태와 비대칭 구조가 특징이다. 송아지가죽과 송치에 벨가죽 프린트나 컬러를 더한 다양한 스타일로 선보인다. 28X25.5cm 2백65만원, 문의 02-517-7560



**다움 바 백** 브랜드를 상징하는 바 재킷의 실루엣을 기반으로 옮겨온 이 토트백은 양면의 매달 미그네트 여립 디테일로 실루엣을 변형할 수 있어 두 가지 스타일로 활용할 수 있다. 옐로, 오렌지를 자연스럽게 그려타이선한 미화적인 타이가 눈에 띈다. 33X25cm 7백만원대, 문의 02-513-3232



**아노나 카라 백** 디자이너 스테파노 필라티가 아노나에서 공개한 첫 번째 백 컬렉션. 1950년대 여행 가방에서 영감을 얻은 본티지한 가죽 질감과 독특한 형태, 넉넉한 수납공간을 강조했다. 가방 전면을 장식한 2개의 핸들은 스카프 등을 끼워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 37X28cm 3백20만원대, 문의 02-3438-6070



www.jacknicklaus.co.kr



**JACK NICKLAUS**  
SINCE 1962



맥 프림+프라이밍 CC 알라 코렉팅 SPF 30 PA+++ 수분감이 더욱 향상되어 스킨케어 제형으로 착각할 만큼 바르는 즉시 촉촉함을 느낄 수 있는 탄탄도 프라이머, 30ml 4만9천원, 문의 02-3440-2645  
 에스티 로더 사이버 화이트 HD 어드밴스드 BB크림 SPF 50 PA+++ 진보한 브라이팅 효과로 잡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완성한다, 30ml 6만원대, 문의 02-3440-2772



인생로랑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콤팩트 글리칸 액티브WT™ 성분을 함유해 디크 스킨까지 개선하는 스마트한 콤팩트, 10g 7만9천원대, 인생로랑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CC크림 SPF 35 PA+++ 컬러 리세팅 테크놀로지가 피부 톤을 즉각적으로 보정하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개선하는 CC크림, 40ml 7만원대, 문의 080-347-0089



샤넬 르 블랑 화이트닝 콤팩트 파운데이션 2년산 진주 추출물을 함유해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효과를 동시에 선사하는 화이트닝 콤팩트 파운데이션, 투명하고 섬세한 파우더가 피부 결점을 벨벳처럼 매끈하게 커버한다, 30g 7만9천원, 문의 080-332-2700

# Second skin

더욱 화사하고, 촉촉해졌다. 게다가 맨 얼굴처럼 자연스럽게 매끄럽다. 해가 지날수록 거듭 진화하는 이번 시즌 베이스 산제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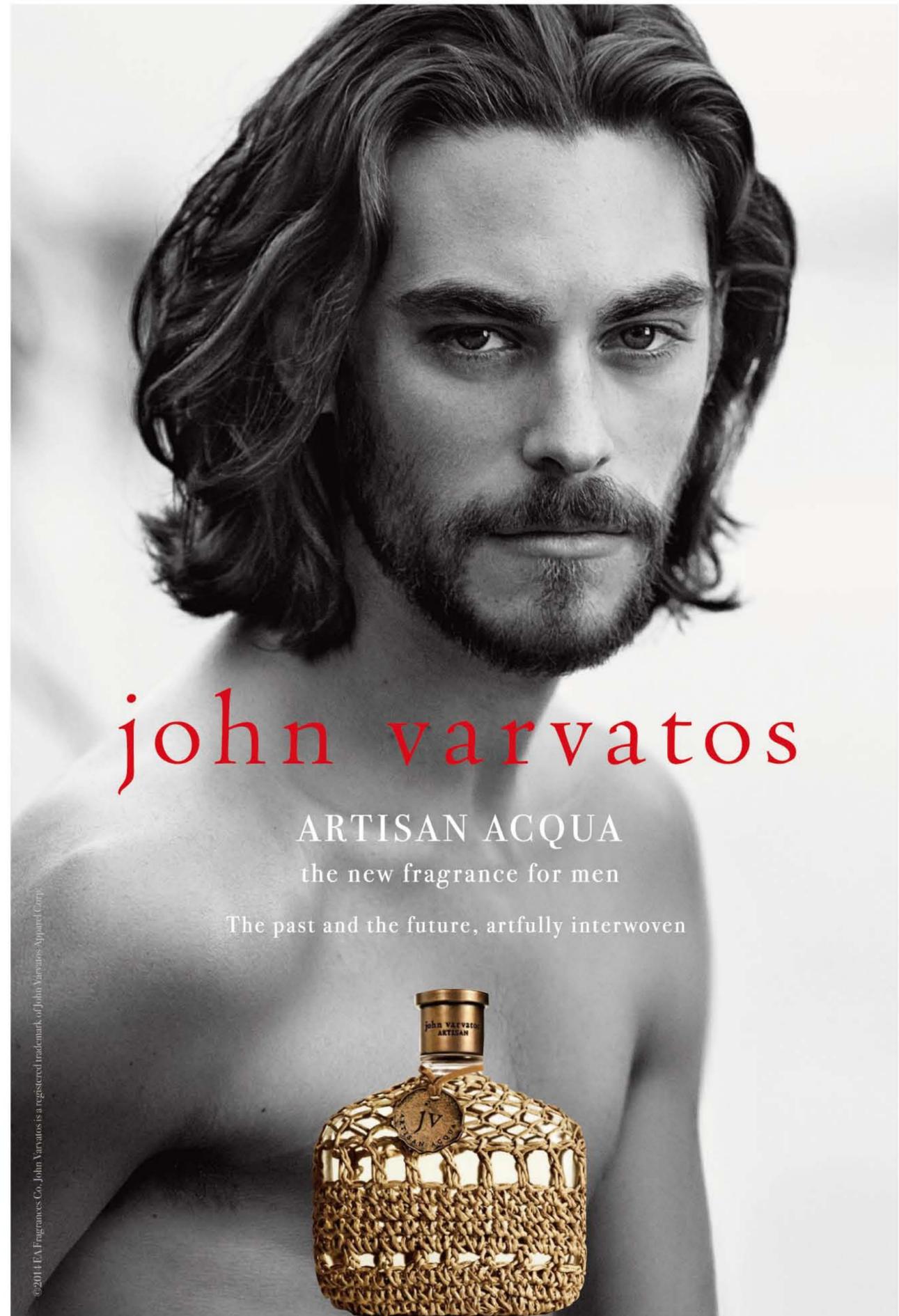
디올 디오스노우 UV 실드 메이크업 베이스 SPF 35 PA+++ 밝은 기를 커버하는 베이지, 노란 피부를 화사하게 보정하는 블루, 청록색 피부를 투명하게 가려주는 핑크, 총 세 가지 컬러로 피부 톤에 맞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크리스탈린 피그먼트가 피부를 즉각적으로 환하게 해준다, 각 30ml 6만9천원, 문의 02-3438-9631



비디비치 스킨 일루미네이션 SPF 30 PA++ 마치 마사지를 받고 나온 듯 즉각적으로 피부가 환해진다. 핑크빛 텍스처로 피부가 노란 여성에게 제격, 30ml 5만2천원, 문의 080-516-1616  
 비비 브라운 엑스트라 브라이팅 파우더 콤팩트 파운데이션 SPF 25 PA+++ 포플러가 더욱 가벼워진 것은 물론 뛰어난 커버력까지 갖춰 투명하게 빛나는 베이지 페이스를 완성한다, 13g 4만5천원, 리필 5만4천원, 문의 02-3440-2781



젤랑 프레드 퍼펙션 타일프로프 파운데이션 SPF 20 PA++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지속력으로 빙글 회전한 듯 하루 종일 보습보충하고 매끈한 피부를 유지한다, 30ml 7만6천원, 문의 02-3438-9627  
 조르지오 아르마니 UV 마스터 프라이머 모브 노란 피부를 보정하는 연보라 컬러 텍스처에 크리스탈 펄 파우더 입자를 함유해 보라 피부가 붉은 듯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광채를 부여한다, 30ml 6만5천원대, 문의 080-022-3332 에디터 권유진



# john varvatos

ARTISAN ACQUA  
 the new fragrance for men

The past and the future, artfully interwoven





# salute to 'King of Sports'

‘왕의 스포츠라 불리는 폴로와 ‘왕실 위스키로 통하는 로얄 살루트의 조하는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근사하다. 특히 중동의 사막 위에 자리 잡은 폴로 클럽에서 펼쳐진 국제적인 폴로 대회 ‘2014년 로얄 살루트 아랍에미리트 네이션스 컵에서 어우러지는 격조 있는 스포츠와 스카치위스키의 궁합은 이색적인 풍경의 매력까지 더해져 더욱 빛을 발했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파악함으로써 공감을 이끌어내는 걸 하이 터치(high touch)라는 단어로 정의한 적이 있다. 감성 마케팅이 화두가 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고객의 마음을 흔이지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하이 터치에 성공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서로 다른 매력을 지녔지만 본질적인 DNA가 맞닿은 이종 업계의 협력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도 이러한 ‘터치’에 성공하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통성을 자랑하는 스카치위스키와 귀족적인 스포츠의 조우. 언뜻 들기에는 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본질’이 통하면 얘기가 다르다. ‘여왕의 위스키로 통하는 로얄 살루트(Royal Salute)와 왕실 스포츠인 폴로(Polo)의 만남이 그 좋은 예다. 브랜드들끼리 손잡은 경우는 아니지만 로얄 살루트와 폴로는 ‘정통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에 둘이 엮어내는 시너지가 남다르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폴로는 가문과 명예를 숭상하고 엄격한 규칙을 지키는 등 격조 있는 ‘왕의 스포츠’다. 로얄 살루트는 1953년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위해 제조된 매우 특별한 위스키로 ‘로얄’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은 상징적인 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얄 살루트가 아르헨티나, 호주, 영국, 중국, 한국(제주) 등 5개 지역에 걸쳐 벌이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은 탁월한 선택이다. 그중 하나가 ‘로얄 살루트 아랍에미리트 네이션스 컵’이다. ‘중동의 뉴욕’으로 불리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사막을 배경으로 한 이색적인 매력 덕분에 더욱더 장관할 만한 가치가 있다.

로얄 살루트가 올해로 5년째 진행해온 이 국제적인 폴로 경기는 지난 1월 말 두바이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부티크 호텔 데저트 팜 리트리트(Desert Palm Retreat)에서 열렸다. 프리미엄 호텔들이 즐비한 두바이에서도 주목받는 이 아름다운 호텔에는 메인 폴로 경기장과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을 갖춘 38개의 객실이 자리한다. 근육이 탄탄하고도 유연한 말을 타고 역동적이면서도 기품 있게 경기장을 누비는 폴로 선수들의 모습을 눈으로 따라가다 보면 말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절로 그 에너지에 빠져들게 된다. 올해의 결승전은 영국과 인도의 대결. 순위를 다투는 경쟁인 만큼 박진감은 있지만 절도 있게 겨루는 선수들처럼 관중도 긴장하기보다는 순수한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여기에 근사한 위스키 향까지 더해지니 이 근사한 사막 위 폴로 클럽은 어느새 작은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다. 여왕에게 헌정된 상징성을 지닌 ‘로얄 살루트 21년’, 마스터 블렌더의 특수한 블렌딩 비법이 돋보이는 ‘로얄 살루트 100 캐스크 셀렉션’, 대관 50주년을 맞이해 제작된 ‘로얄 살루트 50년’ 등 로얄 살루트의 갖가지 버전이 모습을 드러내 관중의 오감을 자극했다. 특히 폴로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제작된 ‘로얄 살루트 폴로 리미티드 에디션’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정량



1. 지난 1월 말 두바이의 데저트 팜 리트리트에서 열린 2014년 로얄 살루트 아랍에미리트 네이션스 컵. ‘여왕의 위스키로 통하는 프리미엄 스카치위스키 로얄 살루트와 왕의 스포츠로 불리는 폴로의 만남이 어우러진 국제 대회다. 2. 이 대회의 개최지인 두바이는 사막과 인공섬이 자아내는 독특한 풍경으로도 유명하다. 3. 로얄 살루트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위해 탄생한 술로 최소 21년의 숙성 기간을 자랑한다. 4. 폴로 대회를 즐기러 두바이를 찾은 각국의 귀빈들은 영국과 인도의 결승전을 지켜보면서 이 격조 있는 왕실 스포츠와 절묘한 궁합을 이루는 로얄 살루트의 향과 맛을 만끽했다.

감 넘치는 향도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의 기분을 경쾌하게 북돋웠다. 위스키 향을 살짝 풍기며 답소를 나누는 인물 중에는 로얄 살루트의 전통을 대변하는 브랜드 앰배서더인 토크힐 이언 캠벨 공작도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유서 깊은 가문인 아가일(Argyll)가의 13대 공작이자 왕실의 유품 상속자이기도 하다는 그는 누구 못지않게 폴로와 살루트의 조합에 애정을 쏟는 인물로 “로얄 살루트는 숙성 기간이 최소 21년인 격이 다른 프리미엄 위스키”라고 강조하며 환상의 짝궁을 이루는 스포츠 폴로와의 출중한 궁합에 호뭇했다.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막판까지 엇지락뒤지락하며 흥미진진하게 전개된 결승전의 승리는 결국 타릭 알바와다가 이끄는 영국 팀에 돌아갔다. 시상식에서 양 팀 선수들이 사이 좋게 만면에 웃음을 띠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지켜보노라니 영국의 유명한 프로 폴로 선수이자 로얄 살루트 월드 폴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맥켄 보위크가 결승전 전날 밤 데저트 팜의 폴로 클럽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에서 한 말이 떠올랐다. 이 연회를 마련해준 두바이 폴로 클럽 소유주에게 네이비 색상의 근사한 폴로 재킷을 선물하며 “후원자들에게 늘 받기만 하는 우리들이 판가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며 미소 짓는 그의 얼굴에는 분명 진심이 묻어 있었다. 이처럼 잘 어울리는 스포츠와 스카치위스키가 만나 기막힌 시너지가 창출된 것은 물론이고 폴로와 로얄 살루트를 사랑하는 이들의 열정도 무려무려 자라나는 듯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이종 결합의 묘미 정도가 아니라 ‘콜라보노믹스(collabonomics)’의 미학이라 할 만하다. 에디터 고성연 두바이 현지 취재



“17년 후에도, 나는 변함없이 내일을 디자인할 것이다.”



STAY TRUE  
LEAVE AN IMPRESSION



# Men's finest

카피캐이 난무하는 내셔널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는 세련된 감성과 정제된 실루엣, 완성도 높은 디테일, 해가 지나도 지루하지 않고 입으면 입을수록 애착이 가는 옷. 이것이 바로 우영미가 이끄는 솔리드 옴므가 급변하는 남성복 시장에서 견제할 수 있는 이유다. 파리 컬렉션에서 10년의 역사를 써 내려간 WOORYOUNGMI와 함께 조용하고 서서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두 브랜드의 모던한 변화와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 국내 남성복 시장의 새 역사를 쓴 솔리드 옴므

반듯한 커팅과 정제된 실루엣, 예술적인 프린트, 감성 충만한 파리지역도 매료시킨 세련된 터치로 국내 디자이너 남성 브랜드 중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솔리드 옴므. 디자이너 우영미가 이끄는 이 단단한 브랜드는 단순한 패션 기업이 아닌, 국내 남성복 시장의 역사를 새로 쓴 보석 같은 존재로 불린다. 국내 디자이너 남성복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1988년에 론칭한 솔리드 옴므는 압구정동에 작은 부티크를 오픈했는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뉴 웨이브 인 서울을 통해서다. 그때만 해도 젊은 디자이너들은 서울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녀와 친구들은 뉴 웨이브라는, 오늘날 서울 패션 위크의 초석이 된 젊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컬렉션을 함께 펼쳤다. 우영미는 우리나라 최초의 레디투웨어 남성복 디자이너로 이름을 올린 후 오로지 남성복이라는 한 우물만 파며 입지를 다져간 경우다. 남성복 브랜드를 이끄는 여성 디자이너가, 그것도 20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구축하며 성장한 브랜드는 솔리드 옴므가 유일무이할 정도다. 후배 디자이너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중요한 본보기가 되어준 것이다. 지난해에는 탄생 25주년을 맞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하는 'RE:BORN'이라는 콘셉트 아래 2013 F/W 컬렉션을 성대하게 선보이며 기념비적인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솔리드 옴므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과 패션 학도는 말할 것도 없고 평범한 회사원들도 가장 입고 싶은 브랜드 중 하나로 꼽는다. 한편 입어본 남성들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우아한 감성과 세련된 실루엣이 해를 거듭할수록 가치를 더한다고 입을 모은다. 영화감독 박찬욱 역시 한 남성 패션 라이선스 매거진과 나눈 인터뷰에서 솔리드 옴므 재킷을 소매가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입었지만 편안함과 품위는 그대로라고 밝히기도 했다. 헬무트 랭이나 라프 시몬스를 떠올리게 하는 과장되지 않은 패딩과 정제된 실루엣, 블랙, 베이지, 네이비 비를 바탕으로 레드와 겨자색을 포인트로 사용한 재킷과 코트가 시그너처 아이템이다. 우영미가 이끄는 브랜드는 솔리드 옴므와 파리 컬렉션에 진출한 자신의 이름을 레이블로 사용한 'WOORYOUNGMI'다. 솔리드 옴므와 우영미 모두 남성복을 만드는 여성 디자이너의 독특한 시각이 담겨 있다. 우영미가 그리는 두 남자는 취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다. 바르고 스마트하며, 감성이 섬세한 남자가 '솔리드 옴므'라면, 예술과 패션을 사랑하고 갤러리를 드나드는 트렌디한 남자는 '우영미'에 비유할 수 있겠다. 입기 쉽고, 대중적이며 정제된 멋을 담은 옷과 우영미의 글로벌



1 플래그십 스토어 5층에 솔리드 옴므가 새롭게 입점하면서 완벽한 맨메이드 공간을 완성했다. 천연 대리석과 볼드한 스테인리스 스틸이 모던한 느낌을 준다. 2 패션 포토그래퍼 다니엘 샌월드(Daniel Sanwald)와 함께 파리에서 작업한 솔리드 옴므 2014 S/S 광고 캠페인. 대리석 구조물을 배경으로 우아하면서도 정제된 감성을 표현했다. 3 압구정동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 '맨메이드 우영미'. 카페와 전시 공간을 비롯해 우영미와 솔리드 옴므 컬렉션까지 만날 수 있는, 남자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 4 영국 작가 앤디 골드워시(Andy Goldworthy)에게서 영감을 받은 2014 S/S 솔리드 옴므. 5 맨메이드 솔리드 옴므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한 감성, 독창성을 드러내기 위한 옷으로 나뉜다. 스타일과 감성은 다르지만, 두 브랜드 모두 옷의 완성도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철학은 동일하다.

## 롯데 높은 프렌치를 사로잡은 WOORYOUNGMI

솔리드 옴므는 우영미의 힘만으로 구축한 독자적인 세계가 아니다. 브랜드가 탄생한 지 2년 후에는 우영미의 여동생 우정희가 합류하며 브랜드에 힘을 보탤다. 섬세하고 보수적인 우영미와 자유롭고 예술적인 성향을 지닌 우정희의 서로 다른 개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국내에서 견고한 기반을 다져가던 그녀들은 현재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1997년부터 프레타 포르테 전시 등을 통해 유럽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 후 5년 뒤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라인을 론칭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것이 바로 'WOORYOUNGMI'의 시작인 셈이다. 두 디자이너는 패션이 문화와 예술처럼 일상생활에 새로움과 기쁨을 준다고 믿는다. 이는 옷에 대한 우영미의 철학과 방향성에 반영된다. 예술과 패션의 공통점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하거나 예술 단체를 후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스웨덴 아티스트 마가엘 요한손과 함께한 2013 F/W 광고 캠페인 작업과 우영미의 패션 철학을 권오상 작가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2013 S/S 광고가 그 예이다. 한국 디자이너로는 유일하게 파리 맨즈 컬렉션에 데뷔한 이후 어느덧 10주년의 역사를 쓴 우영미는 국내 디자이너는 유럽, 그것도 패션의 중심 도시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보기 좋게 무너뜨렸다. 2002년부터 파리에 진출하면서 무모한 시도일 수도 있는 행보를 소신 있게 밀어붙이며 느리지만 탄탄하게 쌓아온 경험이 빛을 발한 것이다. 게다가 2011년에는 우리나라 디자이너로는 최초로 파리의상조합의 정회원이 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패션의 변방에서 온 한국 디자이너가 디올, 프라다, 드리스 반 노튼 등 유명 패션 하우스와 같은 선상에 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 얼마 전 열렸던 2014 F/W 컬렉션에서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패션 전문 에디터인 수지 맨키스를 비롯해 파리의상조합 회장인 디디에 그랑바흐 등 영향력 있는 프레셔와 패션 관계자가 참석해 파리 패션 위크의 빅 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해 보였다. 쇼가 끝난 후 뉴욕 타임스의 패션 디렉터 브루스 파스크(Bruce Pask)는 "입기 쉽고, 고급스러우며, 섬세한 남성을 그려냈다"라는 리뷰를 남겼으며, <지큐 스타일>의 패션 에디터 닉 카벨(Nick Carvell)은 "취향이 다양한 남성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코트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우영미의 파리 매장은 자국의 브랜드조차 입점하기 힘든 몽 마르세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파리 명품 패션 거리인 루 세인트 클라우드에까지 스토어를 확장하며 프랑스에만 플래그십 스토어를 비롯한 총 4개의 매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뿐 아니라 밀라노, 영국을 비롯해 뉴욕과 도쿄, 싱가포르 등 약 16개국에 진출하며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영역을 확고히 하는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우영미가 설계한 남성들의 복합 문화 공간, 맨메이드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남성들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낀 우영미는 파리 맨즈 컬렉션에 진출한 지 10여 년째가 되던 해, 압구정동에 플래그십 스토어 '맨메이드'를 열었다. 오픈 당시 우영미의 토틸 라인업을 비롯해 향초, 화장품, 문구류 등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셀렉트 스킵으로 구성했는데, 지난날에는 이 셀렉트 스킵 대신 5층에 솔리드 옴므가 안착하며 완벽한 맨메이드 우영미를 완성했다. 새롭게 등장한 솔리드 옴므는 천연 대리석과 볼드한 스테인리스 스틸 반, 행어, 집기 등을 모던하게 믹스한 인테리어로 변화를 주었다. 백화점에 입점한 솔리드 옴므 매장까지 순차적으로 새 옷을 입을 계획. 플래그십 스토어는 문을 열자마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어지는데, 통창으로 들어오는 빛 덕분에 마음까지 시원해진다. 한쪽에는 카페를 마련해두어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게 했고, 아티스트의 작품을 시선별로 전시하기도 한다. 수익을 내기도 바쁜 이 넓은 공간을 문화에 관련된 이벤트를 위해 할애하는 걸 보니 소꿉 이상의 경험을 원하는 남성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3층과 4층에는 우영미의 컬렉션 피스와 커머셜 라인을 비롯해 남자 액세서리의 기본인 슈즈와 가방, 가죽 제품, 맞춤 슈트까지 구비되어 있다. 옷을 진열한 방식이 마치 액자에 걸린 작품과 같아 갤러리에 방문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국내 남성복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솔리드 옴므와 파리 맨즈 컬렉션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우영미는 인력으로 나뉘어 있는 두 브랜드를 트윈스트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솔리드 옴므는 더 넓은 해외시장으로, 우영미 컬렉션은 국내에서 보다 대중적으로 다가가도록 공략할 계획이다. 묵묵히 한길만 걸어온 우영미가 견고하게 쌓아 올린 이 두 브랜드가 전 세계 남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세월의 흐름과는 무관한 잘 만든 옷이 지닌 힘은 누구에게나 통하기 마련이니가. 문의 02-515-8897 에디터 **이예진**



6 2014 F/W 파리 맨즈 컬렉션에서 선보인 폭을 담은 우영미의 스타일 보드. 7 그린, 스카이 블루, 화이트가 조화를 이루는 스트라이프와 데님이 그래픽적인 느낌을 주는 우영미 2014 S/S 컬렉션. 8 감각적인 파리지역도 매료시킨 우영미 컬렉션에는 여자 디자이너가 비호하는 예술적인 남자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 9 구조적인 컬러와 핀 스트라이프 팬츠를 선보인 우영미 2014 F/W 컬렉션. 10 2월 13일에 열린 맨메이드 우영미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파티에 참석한 유노윤호기 솔리드 옴므의 옷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다. 11 맨메이드에는 우영미의 2014 S/S 컬렉션을 한정판 작가의 스타일링 작품으로 해석한 전시가 4월 14일까지 열렸다. 12 생생하고 정제된 스타일을 추구하는 솔리드 옴므와 파리 컬렉션을 진행하는 우영미를 이끄는 디자이너 우영미. 13 파리 패션 문화의 거목으로 손꼽히는 루 세인트 클라우드에 거대 오픈한 우영미 플래그십 스토어.



# 소중한 이에게 '나눔'을 선물하는 '사랑, 하나 더'

사회 심리학의 대가인 에리히 프롬은 주는 것은 인간이 지닌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라고 했다. 그런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몫시도 아끼는 소중한 이에게도 나눔의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있다. 연인이든, 자녀든, 친구든, 소중한 사람의 이름으로 작은 기부를 실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로의 존재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랑, 하나 더 캠페인의 매력에 주목해보자.



"나눔은 제게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만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즐거워서 하는 음악이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눌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 하나 더 기부 캠페인에 참여한 가수 윤종신의 이러한 발언은 요즘 많은 이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생의 미학을 생각하게 한다. 자선 활동에서도 이처럼 상생의 시너지를 지향하고 서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단순히 나만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나눔의 마음을 공유함으로써 전체적인 가치를 끌어올린다는 접근 방식은 기부의 차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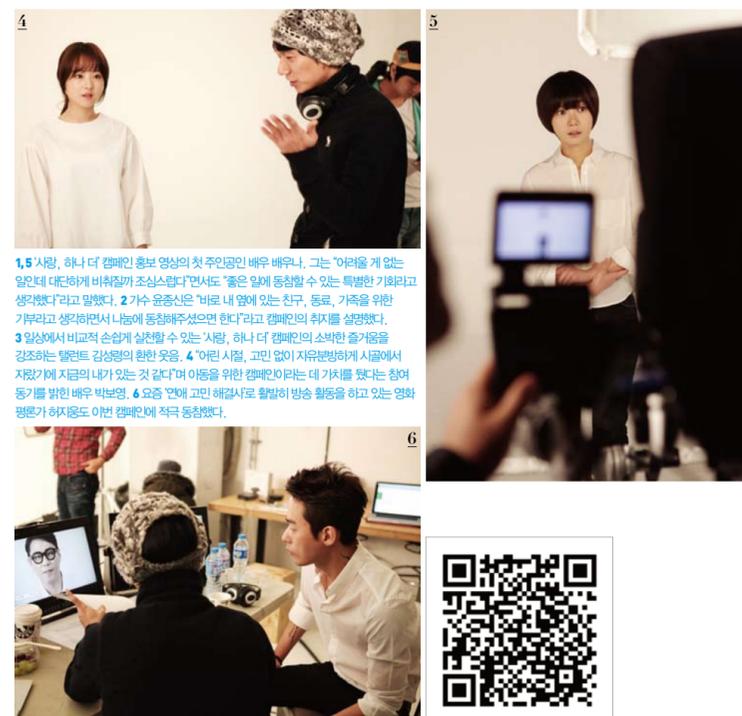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펼치고 있는 사랑, 하나 더 캠페인은 이러한 맥락에서 자못 눈길을 끈다. 후원자가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 누가 됐든 자신이 소중한 여기는 사람의 이름으로 정기 후원을 신청함으로써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눔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캠페인이다. 다시 말해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이, 그리고 타인의 배려가 필요한 이의 가치까지 모두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캠페인에 참여하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소중한 여기는 이,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후원 증서를 받을 수 있으며, 후원금은 국내를 비롯해 세계 56개국 아이들을 위한 보건, 의료, 교육, 주거 사업 등에 사용된다. 사랑하는 이를 기부 천사로 만드는 동시에 지구 반대편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 생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유명인들도 적극 동참하는 추세다. 캠페인 홍보 영상 릴레이의 첫 주자는 배우 배두나. 자신의 친오빠인 배우 CF 감독과 참여한 그는 "제 손끝에서 나눔이 시작돼 지구 반대편까지 전해진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마음이 막 따끈따끈해지는 기분이었어요"라는 소감을 밝혔다. 탤런트 김성령은 "많은 분들이 기부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 데, 시작이 반인 만큼 처음엔 작게 출발해 그 과정에서 따뜻함을 느껴보면 좋을 듯해요"라고 말했다. 이 캠페인 영상 릴레이에는 박보영, 엘(그룹 인피니트), 영화 평론가 허자용 등 10인의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스타들의 나눔 메시지는 캠페인 홈페이지(<http://love.childfund.or.kr>)와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상에서 소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의 미학을 팔기름 삼아 나 자신과 내가 소중한 여기는 이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그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다면 사랑, 하나 더 캠페인을 눈여겨보면 어떨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설립된 국내 최대 아동복지 기관(회장 이재환)으로 세계 56개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 초 추신수 재단과 사회 공헌 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사회 자영업자들과도 꾸준히 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후원문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희망나눔센터 1588-1940, [www.childfund.or.kr](http://www.childfund.or.kr)



1,5 사랑, 하나 더 캠페인 홍보 영상의 첫 주인공인 배우 배두나. 그는 "아름답게 없는 일인데 대단하게 비춰질까 조심스럽다"면서도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 가수 윤종신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 동료, 가족을 위한 기부라고 생각하면서 나눔에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3 일상에서 비교적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랑, 하나 더 캠페인의 소박한 즐거움을 강조하는 탤런트 김성령의 환한 웃음. 4 어린 시절, 고민 없이 자유분방하게 시골에서 자랐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다며 이동을 위한 캠페인이라는 데 가치를 뒀는 참여 동기를 밝힌 배우 박보영. 6 요즘 연예 고인 해질사로 활발히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영화 평론가 허자용도 이번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배두나의 행복한 기부 '사랑, 하나 더'  
사랑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http://love.childfund.or.kr>  
후원문의 1588-1940

# fresh impact 2014

이보다 더 다채로울 수 있을까. 고유의 DNA와 감성으로 봄날의 여심을 뒤흔들 빅 패션 하우스의 트렌디한 스프링 룩.  
photographed by jung ji eun



그래픽 아트와 스포티즘을 결합한 컬렉션 모두 프라다.



모던하고 도시적인 무드가 세련된 컬렉션 모두 발프 로렌 컬렉션.  
(수즈 왼쪽부터) 블랙 오픈토 힐 샌들, 나머지 모두 구찌.

(왼쪽부터) (모델 1) 멀티 컬러 패턴 스웬수트, 블루 랩 블라우스, 스웨이드 스커트, 스웨이드 스트랩 슈즈 모두 **에르메스**, 몬타나 아이리쉬 **더 에어리스**, (모델 2) 베이징 드레스, 패턴 롱부츠 모두 **에르메스**, 크리스탈 아이리쉬 **저스틴 데이비스**, (모델 3) 스트라이프 롱 드레스, 블랙 스틸레토 펌프스 모두 **디올**, 크리스탈 아이리쉬 **스와로브스키**, (모델 4) 오렌지 리플 블라우스, 베이징 스커트, 핑크 스웨이드 스트랩 슈즈 모두 **에르메스**, 블랙 크리스탈 아이리쉬 **스와로브스키**, (모델 5) 스카이 블루 크롭트 재킷, 화이트 랩스커트, 블루 펌프스 모두 **디올**, 크리스탈 드림 아이리쉬 **스와로브스키**.



(왼쪽부터) (모델 1) 버건디 드레스, 브라 톱, 블랙 스트랩 힐 모두 **구찌**, (모델 2) 블랙 레더 재킷, 데님 팬츠, 앵클부츠 모두 **생로랑**, (모델 3) 시퀸 드레스, 브라 톱 모두 **구찌**, (모델 4) 시파리 재킷, 블랙 시스루 셔츠, 가죽 스커트, 블랙 스트랩 펌프스, 비즈 삭스 모두 **생로랑**, (모델 5) 메탈릭 점프 슈트, 블랙 앵클 부티 모두 **구찌**.



(왼쪽부터) (모델 1) 블랙 사이닝 톱과 팬츠, 네크리스 모두 **구찌**, (모델 2) 골드 톱과 네크리스 모두 **랑방**, (모델 3) 핑크 사이닝 재킷과 샴버 톱, 메메이드 스커트 모두 **랑방**, (모델 4) 버건디 사이닝 드레스와 브라 톱 모두 **구찌**, 모델들이 쓴 선글라스 모두 **트리터**.



(왼쪽부터)  
 (모델 1) 블랙 드레스와  
 펌프스, 양 손목에 긴  
 커프 뱅글 모두 **생로랑**.  
 (모델 2) 블랙 체인 재킷과  
 스커트 모두 **모스키노**, 블랙  
 슈즈 **샤넬**, (모델 3) 화이트  
 블라우스와 팬츠, 볼드한  
 진주 볼 네크리스, 화이트  
 팬츠, 블랙 슈즈, 진주 스케어  
 링 모두 **샤넬**, (모델 4) 체크  
 드레스, 진주 볼 네크리스,  
 아이보리 & 블랙 슈즈  
 모두 **샤넬**, (모델 5) 블랙  
 텍사드 재킷과 팬츠,  
 화이트 핀턱 셔츠, 블랙  
 앵클부츠 모두 **생로랑**.



(왼쪽부터) (모델 1) 네이비 실크 드레스 **살바토레 페라기모**, 크리스탈 링 **미네타니**.  
 (모델 2) 트워드 드레스, 진주 볼 네크리스, 진주 스케어 링 모두 **샤넬**, 진주 주얼리 **미네타니**.  
 (모델 3) 화이트 톱, 블랙 팬츠 모두 **끌로에**, (모델 4) 트워드 재킷, 드레스, 진주 브레이슬릿 모두 **샤넬**.  
 (모델 5) 블랙 크롭트 톱, 팬츠 모두 **디올**, 진주 링과 브레이슬릿 모두 **미네타니**.

빛과 물, 디지털 세계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 모두 **팬디**.



시각스러운 파스텔컬러와 자극히 여성스러운 실루엣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컬렉션 모두 **버버리 프로섬**, **살비 펑프스 슈콤마보니**, 비비드한 컬러의 스트랩 샌들 모두 **버버리 프로섬**, 클러워 헤어피스 모두 **프리마로나**.



클린하고 페미닌한 무드가 아름다운 컬렉션 모두 **토즈**.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션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헤어 한지선, 이선영  
메이크업 오미영, 안성희  
모델 박세라, 스테파니, 이승미, 이성경, 최소라  
스타일리스트 재한석  
어시스턴트 김혜민, 봉재경  
에디터 권유진

콜로에 02-6905-3670 맨디 02-2056-9023 디올 02-513-3232 구찌 1577-1921 에르메스 02-544-7722 토즈 02-3438-6008 할프 로렌 컬렉션 02-545-8200 사넬 02-546-0228 프라다 02-3218-5331 프리마로나 02-797-7826 버버리 프로섬 02-3485-6583 페라가모 02-2140-9641 랑방 02-3438-6186 생로랑 02-3438-7627 더 에어리스 02-512-1463 스와로브스키 02-3395-9096 미네타리 02-3443-4164 트리터 02-3446-8556 저스틴 데이비스 02-518-0049 슈콤마보니 1588-7667



# Beyond the time

지난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올해 24회를 맞이한 국제고급시계전시회 SIHH(Salon International de la Haute Horlogerie)에는 이김없이 마음을 들뜨게 할 놀라운 기능으로 중무장한 새로운 위치 컬렉션이 가득했다. 모든 기록을 다시 쓰게 한 울트라-씬 위치와 특허 행진으로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하이 컴플리케이션 위치까지 2014년을 뜨겁게 달군 SIHH의 히어로 컬렉션을 소개한다.



## 까르띠에 발롱 드 까르띠에

부드러운 곡선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까르띠에의 모던 위치 발롱 드 까르띠에 위치 컬렉션은 올해 SIHH에서도 1백 개가 넘는 새로운 위치를 선보인 까르띠에의 핵심 모티브로 등장하며 네 가지 신제품으로 선보였다. 플라잉 투르비용을 장착한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에나멜 위치와 앵무새 모양을 꽃잎으로 섬세하게 세공한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꽃잎 상감 세공 패턴 위치,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엘 스트라 플렉 위치, 반짝이는 헤성처럼 등장한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위치까지 다양한 변주를 선보였다. 그 중에서도 플라잉 투르비용을 장착한

새로운 컬렉션은 직경 39mm의 새로운 케이스 안에 딥블루 에나멜 소재의 특별한 다이얼을 장착해 소형 시계를 선호하는 남성들에게 완벽한 룩을 선사한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케이스두께를 11.4mm로 조절했고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9452MC 칼리버를 장착해 가치를 더욱 높였다. 발롱

블루 컬렉션의 뒤를 이어 까르띠에 매뉴팩처의 오토매틱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1904MC를 장착한 칼리브 드 까르띠에 다이버 위치는 완전히 새로운 컬렉션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모델. 강인한 라인과 독창적인 구조가 돋보이는 칼리브 드 까르띠에 위치에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다이버 기능을 적용해 까르띠에의 새로운 발전을 보여주는 컬렉션이다. 역 회전방지 단방향 회전 베젤과 슈퍼 루미노바 야광 디스플레이, 300m 방수 기능까지, 모두 까르띠에 매뉴팩처에서 개발한 수작이다.

## 보메 메르시에 클립트 오토매틱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브랜드를 상징하는 클립트 컬렉션 중 새롭게 선보인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모델. 브랜드가 보유한 스물 컴플리케이션 분야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모델로, 파워 리저브 창과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캘린더가 특징이다. 오토매틱 셀 프와인딩 칼리버를 장착한 직경 43mm의 스틸 소재 위치로, 완벽한 가독성을 추구하는 탁월한 제품이다. 균형미와 실제적인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는 보메 메르시에의 철학을 그대로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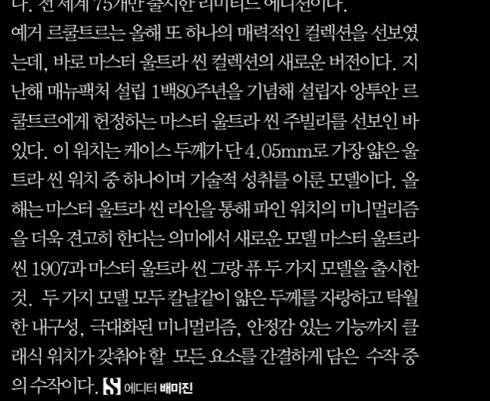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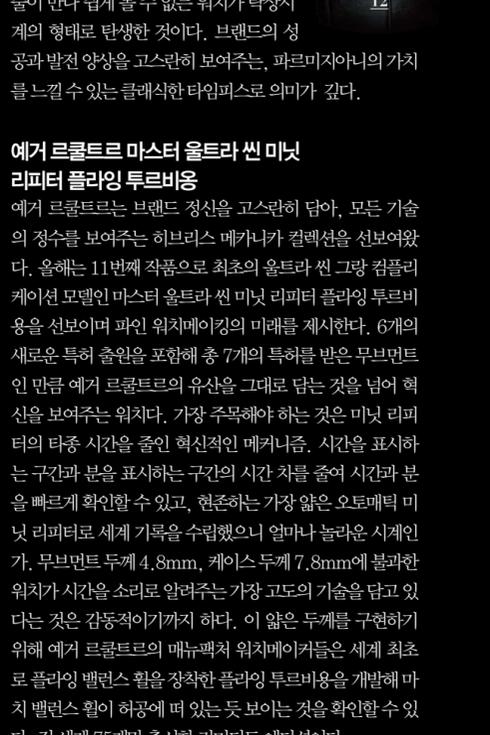


## 피아제 알티플라노 38mm 900P

드디어 피아제가 완성한 무브먼트와 케이스가 통합된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기계식 시계. 올해 SIHH를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울트라-씬 위치메이킹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알티플라노 38mm 900P 모델이다. 1957년 피아제 하우스에서 제작한 최초의 울트라-씬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리버 9P에서 유래한 모델로 두께가 2mm에 불과해 피아제 울트라-씬의 역사를 보여주는 운명적인 무브먼트다. 1960년 이미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두께 2.3mm의 칼리버 12P를 선보인 바 있는 피아제는 모든 울트라-씬 시계 분야에서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3년간 협업을 통해 완성한 1백45개의 부품은 경우에 따라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얇은 두께로 제작하고, 일부 휠의 두께는 0.12mm에 불과할 정도로 정교해 놀랍다. 100분의 1 간격으로 무브먼트를 매치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기계식 시계의 심장을 만드는 일은 엄청난 도전인 것이다. 브랜드 고유의 장미를 갖고 있을 만큼 정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피아제의 새로운 여성 시계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브 피아제 로즈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라임라이트 블루밍 로즈 위치는 수줍게 피어나는 장미 꽃봉오리 형태를 표현한 매력적인 주얼리 위치다. 화단에서 꽃이 피어나는 형상에서 영감을 받아 데일리 룩에도 어울리는 우아함을 지녔다. 45도 회전하는 감각적인 케이스, 2.4캐럿에 달하는 2백5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현대적으로 마무리한 것이 특징이다. 초기 스케치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피아제 매뉴팩처에서 진행했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컬렉션이다.

## 파르미지아니 톤다 메트로 컬렉션

뉴욕과 홍콩, 대도시의 화려함과 활동성을 모티브로 한 파르미지아니의 새로운 컬렉션 톤다 메트로. 각도에 따라 바뀌는 빌딩에서 모티브를 얻어 왼쪽과 오른쪽에 비대칭 리그를 사용해 독특한 매력을 담았다. 파르미지아니의 대표 컬렉션 톤다 1950의 클래식함에 모던하고 도시적인 디자인을 더한 디자인으로 인하우스 무브먼트 PF315를 장착했는데, 무브먼트 역시 모티브에 맞도록 매우 정밀하고 슬림하게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3시와 9시 방향에 위치한 크로노그래프 카운터와 달리 숫자 '9'의 형태를 표현한 크로노그래프 미닛, 아워 카운터는 파르미지아니 고유의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특징을 담고 있다. 톤다 메트로 컬렉션은 모두 브레이슬릿과 호환이 가능한 데 브레이슬릿 각각의 링크에도 파르미지아니의 팔방울 모양이 사용되었고,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해 브레이슬릿 사이가 뜨지 않고 손목에 착 감기도록 고안했다. 에르메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제작한, 특별한 컬러의 레더 스트랩도 매력을 더하는 요소다. 시계 장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간직한 파르미지아니는 기존 컬렉션 중 독특한 위상을 자랑하는 탁상시계 플러드 오리엔트를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이 작품은 파르미지아니의 초창기 작품 중 하나로 1906년 5월 29일 브랜드 론칭 때 처음으로 공개된 바 있다. 마린 크로노미터의 커다란 무브먼트에서 영감을 얻은 플러드 오리엔트에 사용한



## 에거 르클트르 마스터 울트라 씬 미닛 리퍼터 플라잉 투르비용

에거 르클트르는 브랜드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 모든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히브리스 메카니카 컬렉션을 선보여왔다. 올해는 11번째 작품으로 최초의 울트라 씬 그랑 컴플리케이션 모델인 마스터 울트라 씬 미닛 리퍼터 플라잉 투르비용을 선보이며 파인 위치메이킹의 미래를 제시한다. 6개의 새로운 특허 출원을 포함해 총 7개의 특허를 받은 무브먼트인 만큼 에거 르클트르의 유산을 그대로 담은 것을 넘어 혁신을 보여주는 위치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닛 리퍼터의 타종 시간을 줄인 혁신적인 메카니즘. 시간을 표시하는 구경과 분을 표시하는 구경의 시간 차를 줄여 시간과 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현존하는 가장 얇은 오토매틱 미닛 리퍼터로 세계 기록을 수립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시계인가. 무브먼트 두께 4.8mm, 케이스 두께 7.8mm에 불과한 위치가 시간을 소리로 알려주는 가장 고도의 기술을 담고 있다는 것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이 얇은 두께를 구현하기 위해 에거 르클트르의 매뉴팩처 위치메이커들은 세계 최초로 플라잉 밸런스 휠을 장착한 플라잉 투르비용을 개발해 마치 밸런스 휠이 허공에 떠 있는 듯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 75개만 출시한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에거 르클트르는 올해 또 하나의 매력적인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바로 마스터 울트라 씬 컬렉션의 새로운 버전이다. 지난해 매뉴팩처 설립 1백80주년을 기념해 설립자 앙투안 르클트르에게 헌정하는 마스터 울트라 씬 주빌리를 선보인 바 있다. 이 위치는 케이스 두께가 단 4.05mm로 가장 얇은 울트라 씬 위치 중 하나이며 기술적 성취를 이룬 모델이다. 올해는 마스터 울트라 씬 라인인을 통해 파인 위치의 미니멀리즘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모델 마스터 울트라 씬 1907과 마스터 울트라 씬 그랑 퓨 두 가지 모델을 출시한 것. 두 가지 모델 모두 칼날같이 얇은 두께를 자랑하고 탁월한 내구성, 극대화된 미니멀리즘, 안정감 있는 기능까지 클래식 위치가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간결하게 담은 수작 중의 수작이다. **SI** 에디터 배미진

2

6

8

9

10

12

1 까르띠에의 워터 부스 전경. 까르띠에는 올해 전 세계에서 1백 개 이상의 새로운 위치를 선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2 올해 새롭게 선보인 칼리브 드 까르띠에 다이버 위치. 브랜드의 클래식한 매력에 스포티함을 담은 특별한 모델이다. 3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에나멜 위치. 4 보메 메르시에 클립트 오토매틱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5 이브 피아제 로즈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라임라이트 블루밍 로즈 위치. 6 보메 메르시에 클립트 오토매틱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7 올해 SIHH에서 가장 주목받은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기계식 시계. 피아제 알티플라노 38mm 900P. 8 파르미지아니 톤다 메트로 컬렉션의 영감이 된 화려한 빌딩 숲. 9 파르미지아니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완벽함을 담은 과감한 디자인의 새로운 톤다 메트로 컬렉션의 대표 모델. 10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는 파르미지아니의 플러드 오리엔트 탁상시계. 복잡한 기능을 그랑 컴플리케이션 무브먼트를 갖췄다. 11 정제된 라인을 선보이는 에거 르클트르 마스터 울트라 씬 1907 컬렉션. 12 브랜드의 비전을 정교하게 담은 에거 르클트르의 히브리스 메카니카 컬렉션 마스터 울트라 씬 미닛 리퍼터 투르비용.

# horological Arts

정밀함의 극치를 담아낸 시계가 예술로 추앙받는 요즘이지만, 처음부터 시계 자체를 '시계 예술(horological arts)'로 접근한 워치메이커가 있다. 바로 19세기 초 첫 번째 포켓 워치를 만든 에두아르 보베다.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시계를 만드는 스위스 보베 캐슬 매뉴팩처에 다녀왔다.

## 청나라를 사로잡은 진귀한 화중시계, 보베

보베(Bovet)라는 시계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표현은 '진귀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세계적인 하이엔드 워치 박람회인 SIHH가 열린 제네바에서 신제품을 선보인 보베의 프레젠테이션은 과연 이것이 21세기에 만든 시계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놀라운 작품이 많았다. 물론 보베의 과거를 찬찬히 살펴보면 지금 눈앞에 놓인 작품의 완성도가 단시간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위스 워치메이킹 산업에서 시계 예술의 선구자 중 하나였던 에두아르 보베는 핸드 인그레이빙, 에나멜과 미니 어치 페인팅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인정받았다. 무브먼트 개발과 테크레이션의 모든 분야에서 선구자로 추앙받았고, 기술적 경지와 예술적 감각은 상업적으로도 뛰어난 결과를 낳았다. 보베 시계가 중국 황실에 전해지며 유럽에서 유래된 예술적 감각을 받아들여주는 교두보 역할을 한 것이다. 1818년 중국 광저우에서 4개의 화중시계를 판매한 에두아르 보베 하우스의 고객 리스트에는 중국 황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19세기 후반 판매된 타임피스 중 하나는 오늘날까지 전시되어 있다. 섬세하게 묘사한 백조 두 마리가 그려진 이 시계는 에두아르 보베의 성공을 상징하는 증표와도 같다. 청나라 황실의 시계 제조사로 발탁된 이후에는 중국에서는 시계라는 단어를 '보베'라는 브랜드명으로 칭했을 정도로 그 역사가 길고, 깊다. 1백9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지닌 보베는 퀴즈 파동과 스위스 시계 산업의 쇠락에 따라 그 발자취가 흐려진 적도 있었지만, 이 브랜드의 가치를 알아본 파스칼 라피(Pascal Raffy)가 보베의 신화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그는 2001년 보베를 인수한 후 2006년에는 투르비용과 각종 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무브먼트 제작사인 디미에 1738(DIMIR 1738) 공방을 인수, 이후 보베 전 제품의 무브먼트를 디미에에서 생산하고, 공방의 이름을 딴 디미에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 뇌사텔에 위치한 모티에르 성을 매입해, 보베의 유통과 제조를 책임지는 본사를 세우는 독특한 행보를 보였다. 실제로 보베 캐슬에서 시계 제작 공정의 일부분을 진행하는데, 성인의 공방에서 직접 만난 시계 장인들은 모두 보베의 전통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 1백90년의 역사, 시계 예술을 지키는 보베의 워치메이커

1822년 이래 긴 역사를 이어온 보베는 무브먼트에서 케이스 장식까지 100% 장인들이 수공으로 제작하는 것을 고집한다. 이 때문에 1년에 생산하는 시계는 3천 개 내외로 보베 타임피스의 기술력과 장인 정신에 희소치라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더해진다. 보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에나멜 페인팅과 인그레이빙이다. 작은 다이얼에 에나멜 아티스트가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 작업은 전 세계에서 오직 4명만이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기술이다. 이에 걸맞게 보베는 시계에 스위스 메이드가 아닌 작은 부품부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로 '스위스 핸드크래프트(Swiss handcrafted)'라 표기할 정도로 그 열정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보베는 컨버터를 시계로도 유명했는데, 19세기 초 에두아르 보베가 만든 첫 번째 포켓 워치는 그 시대에 볼 수 없는 장식미로 가득 차 있었다. 포켓 워치에 최초로 투명 케이스 백을 적용해 아름다운 무브먼트 테크레이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것도 보베였으며, 이러한 장식미에 대한 철학은 컨버터를 시계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 손목시계에서 가죽 스트랩을 빼고 백 케이스를 열린 탁상시계가 되고, 여기에 다시 백 케이스를 닫고 화중시계 줄을 달면 그대로 포켓 워치가 되는데, 이 기능을 '아마테오 시스템'이라 칭한다. 이 아마테오 컬렉션 워치의 경우 앞면이 다르게 구성되어 가죽 스트랩 방향만 달리하면 시계를 양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보베만의 독특한 표현 양식이다. 보베의 CEO 파스칼 라피는 참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과거를 기리며 이러한 고전 양식을 계승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오늘날 시간은 모든 곳에 놓여 있습니다. 거리, 컴퓨터나 휴대폰에도. 하지만 보베는 보베 타임피스 안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시계 기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워치메이킹의 정신을요." 테크레이션 아트의 미려함을 보존하고, 워치메이킹의 정신을 기리는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혁신적인 행보, 몇지지 않은가. 에디터 배미란



1 미니어치 페인팅 기법을 사용한 이미에오 플라피에 레디 컬렉션 '모투스'. 에두아르 보베는 초기부터 사실적인 묘사의 세밀하게 정제한 미니어치 페인팅으로 중국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세기 초 이 기술이 모두 사라져 갈 때 보베는 이러한 장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성해 왔다. 2 상하이에서 발행한 보베 인중서. 3, 4 보베의 중요한 컬렉션을 생산하는 스위스의 사토 드 모티에르 캐슬. 뇌사텔 캠포 구역에 위치한 상으로 뇌사텔 자항의 백작이었던 로돌프 사토가 14세기 초에 지은 것이다. 보베 캐슬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보베의 핵심 기술인 미니어치 페인팅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5 보베의 가치를 알아본 CEO 파스칼 라피. 6 미니어치 페인팅 기법의 이미에오 플라피에 '모스'. 7 장식미가 돋보이는 이미에오 레디 스텔라트 투르비용 타임피스의 무브먼트.



1, 3 브리오니에서 선보이는 웨딩 컬렉션. 클래식하고 품격 있는 예복 스타일이 돋보인다. 2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국내 브리오니 매장에서 최고급 맞춤 서비스인 수미주라 이벤트를 개최한다. 4 브리오니의 공동 설립자인 나치레노 폰티콜라와 계보가 시니니. 5 0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최초의 브리오니 부티크. 6 브리오니의 완벽한 수트를 더욱 럭셔리하게 빛내줄 커브스 링크.



# Art of suit

많은 남자들이 수트를 입는다. 하지만 수트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유행이나 취향에 휘둘리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입을 수 있는 클래식한 핸드메이드 수트는 남자의 품격을 높인다. 특히 브리오니(Brioni)의 완벽한 테일러링을 가미한 맞춤 수트라면 더더욱 그렇다.

## 성공한 리더의 완성, 브리오니

'수트는 남자에게 제2의 피부와도 같다'라는 말이 있듯 남자와 수트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 사회적 지위,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수트를 입는 것은 물론이거나 지금도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양복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똑같아 보여도 면밀히 살펴보면 몸에 맞게 잘 재단한 수트를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량생산된 수트를 입은 사람도 있다. 이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차이이다. 요리사가 재료를 손질해 정성스레 만든 음식과 인스턴트식품이 다를 수밖에 없듯 장인의 손길로 완성한 수트와 기계로 찍어낸 기성복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좋은 수트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적인 의견은 브랜드나 가격을 떠나 입는 이와 최대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핸드메이드 수트의 인기가 꾸준해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한 곳 차이로 달라지는 수트의 핏과 균형 때문이다. 이탈리아 명품 남성복 브랜드 '브리오니'는 194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역사를 시작한 이래, 맞춤복과 기성복 모두 100% 핸드메이드를 고집하는 몇 안 되는 브랜드 중 하나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품격과 완벽에 가까운 테일러링으로 전 세계의 왕족, 정·계 유명 인사와 예술가들에게 사랑받으며 성공한 리더를 위한 수트 브랜드로 그 입지를 탄탄히 다져왔다. 어게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에 착 감겨 떨어지는 브리오니 수트의 진정한 묘미는 잘 만든 멋진 수트를 원하는 감각적인 남성들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하다. 브리오니의 모든 수트는 60여 회의 다량검과 22시간이 넘는 핸드 스티칭을 포함한 2백20여 회의 섬세한 수작업으로 완성되며, 높은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 하루에 약 3백 벌로 생산량을 제한한다. 이처럼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완성한 브리오니 수트가 감동으로 다가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단 한 사람의 고객을 위한 수미주라 서비스

대부분의 남자들이 몸에 맞는 수트를 원하지만 기성복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맞춤 수트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누구나 똑같은 개성 없는 양복이 아닌 나만을 위한, 내 체형에 맞는 특별함 때문이다. 브리오니 공방의 1일 생산량 중 약 25%는 단 한 사람의 고객에게 맞추어 만든 수미주라(Su Misura: MTM), 즉 맞춤복이다. 브리오니는 오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국내 브리오니 매장에서 최고급 맞춤 서비스인 수미주라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전 세계에서 단 3명뿐인 브리오니 테일러링 스텔 출신 마스터가 직접 방한해 고객과의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맞춤 수트의 핵심은 꼭 맞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몸에 맞는 정확한 치수를 찾는 것이다. 이를 파악하고 있는 브리오니는 고객 한 명 한 명의 체형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물론, 개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객의 특성과 요구를 분석해 단 한 사람을 위한 완벽한 수트를 제작한다. 패턴부터 재단, 소재 선별, 재봉까지 모든 공정에 장인의 노하우와 정교한 손길을 그대로 담아 옷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이렇게 약 6주간의 공정과 시간을 거쳐 완성한 맞춤 수트는 멋진 스타일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몸과 일체감이 느껴질 만큼 편안하고 완벽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브리오니는 올봄 웨딩 시즌을 맞이해 멋과 품격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예복 수미주라 서비스도 선보인다. 턱시도를 비롯해 커머밴드, 보타이, 블랙 페이퍼트 슈츠 등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다양한 웨딩 컬렉션을 제안할 뿐 아니라 개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을 담아 이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웨딩 수트를 제작한다. 브리오니는 전 세계 70여 개의 부티크와 4백여 개의 셀렉트 스텔을 통해 만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신라 호텔, 그랜드 하얏트 호텔,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브리오니만이 지닌 특별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2-3274-6483 에디터 권유진



# Tie tips

색상과 패턴, 매듭의 조우가 만드는 넥타이의 견고한 매력은 남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언어다. 보다 다채로워진 최근 남성 패션 트렌드에 맞추어 다양한 폭과 디자인, 소재로 등장한 새로운 타이들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골드 라메의 독특한 질감이 느껴지는 실크 소재 슬림 타이. 슬림 핏 수트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다. 28만원 **생로랑**, 문의 02-3438-7627



가장 클래식하고 보수적인 스타일의 수트에 어울리는 우아한 그린 컬러의 실크 소재 프린트 타이 43만원대 **카본**, 문의 02-542-9963



디자인이 독특한 타이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트릴 스피아지(will spigge) 소재의 플라워 프린트 타이 20만원대 **프리다**, 문의 02-3443-6047



화려하지만 고급스러운 소재와 아름다운 컬러로 풍격을 잃지 않은 플라워 프린트 타이 32만원 **폴 코드**, 문의 02-6905-3534



(왼쪽) 올 소재 슬림 타이 19만원 **랑방 울브**, 문의 02-6905-3496 (오른쪽) 세로 스트라이프 패턴의 블랙 슬림 타이 30만원대 **보타가 베네다**, 문의 02-3438-7681



디자인이 화려하지만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신선했던 옐로 컬러 페이즐리 패턴의 실크 타이 10만5천원 **발잡레리**, 문의 02-2076-7623



코튼과 실크 소재를 믹스한, 비즈니스를 위한 그레이 스트라이프 패턴 클래식 타이 10만5천원 **발잡레리**, 문의 02-2076-7623



감각적인 타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붉은 해골 모티프가 독특한 실크 타이 가격 미장 **알렉산더 맥퀸 by 분더상**, 문의 02-3444-3300



타이 뒷면에 위트 있는 그래픽이 그려져 있는 블루 타이, 빈번되는 패턴이 리드미컬한 타이 모두 가격 미장 **에르메스**, 문의 02-544-7722 에디터 **베미진**

(왼쪽부터) 기계식 시계의 여성미를 극대화한 칼파리사마노바, 파르미지아니의 스포츠 워치 컬렉션 칼파그래프, 우아함과 균형미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톤다 1950 컬렉션, 모두 파르미지아니.



# absolute Elegance

단순히 정교한 시계를 넘어서,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브랜드가 바로 파르미지아니다. 손목 위에서 빛나는 자태만으로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며 우아함을 완성하는 파르미지아니의 대표 워치 컬렉션.



## 100% 자체 제작 시계 장인 브랜드, 파르미지아니

상업적인 뉴앙스로 점철된 오늘날의 하이엔드 워치 시장에서 파르미지아니는 장인 정신을 지키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몇 안 되는 브랜드 중 하나다. 세계가 인정하는 현존하는 3대 마스터 워치메이커인 미셸 파르미지아니는 '신이 주신 선물(divined gift)'이라는 수식을 얻을 정도로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다. 유니크한 독립 브랜드에서 순수한 매뉴팩처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00% 모든 공정을 책임지는 5개의 공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준 산도즈 재단(Sandoz Foundation) 덕분이다. 산도즈 재단은 스위스에 기반으로 두고 사회 활동과 문화 예술 사업을 하는 영리 재단으로, 1976년부터 미셸 파르미지아니의 천재성을 높이 사 파르미지아니를 독창적인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후 무브먼트부터 다이얼까지 모든 공정을 완성할 수 있는 5개의 공장을 세우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고히 하게 되었다. 파르미지아니 자체 브랜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에르메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무브먼트를 공급하고 파르미지아니 위치에 사용하는 가죽 스트랩을 에르메스 가죽으로 제공받을 정도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 톤다 1950와 칼파그래프, 그리고 칼파리사마노바

파르미지아니의 우아함을 오랫동안 느끼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톤다 1950 워치 컬렉션을 기억해야 한다. 군더더기 없는

유려한 디자인에 셀프로인딩 울트라 썬 무브먼트 PF700을 품고 있는 7.8mm에 불과한 얇은 케이스는 오래 두고 보는 클래식한 워치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 무브먼트의 완성도는 더욱 놀랍다. 얇은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부 무브먼트를 구성하는 니켈 실버 소재의 메인 플레이트를 샌딩 블래싱 처리해 더욱 매끄럽고 세밀하게 만든 후 로딩으로 도금 처리했다. 우아함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부의 주요 부품을 고품격 피니싱으로 완성한 것이다. 파르미지아니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스포츠 컬렉션인 칼파그래프의 역동적이며 박력 있는 디자인은 기존 파르미지아니 컬렉션을 떠올린다면 모험적이고 드라마틱한 디자인이기에 더욱 눈길을 끈다.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에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장착한 모델로 독특한 크로노그래프 인디케이션 배열이 독창적이다. 50시간 파워 리저브, 2중 배럴 시스템의 PF334 무브먼트는 밸런스 휠, 배럴, 브리지까지 모든 주요 공정을 100% 자체 제작으로 완성했기에 더욱 소장 가치가 높다. 아치형 디자인이 선사하는 매력은 칼파리사마 여성 워치 컬렉션에서도 이어지는데, 기존 파르미지아니 여성 오토매틱 무브먼트 PF331을 작게 조정해 사각형 케이스인 토너 세이프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인 것. 로즈 골드 케이스에 마치 눈이 흘날라게 것처럼 세팅한 다이아몬드와 6시 방향의 무빙 스타 스톤 세팅은 독창적이면서도 유니크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실제로 유백색 다이얼은 별이 움직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여성미의 극치를 이룬다. 화려함과 우아함, 극도의 절제된 클래식함을 자체 제작 100%의 장인 정신으로 담아낸 파르미지아니의 매력을 알게 된다면 진정한 시계 애호가의 세계로 들어서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문의 02-3479-1986 에디터 **베미진**

1 플러리에 위치한 파르미지아니 공장. 2 칼파리사마노바 카를 워치. 3 톤다 헤이스피아를 착용한 미셸 파르미지아니.

# illuminate skin Secret

아직도 잡티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있는가. 화사한 봄빛처럼 한층 물오른 귀족 피부를 연출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채 어린 피부 톤이다. 칙칙하고 거친 피부를 감쪽같이 커버하고 핑크빛 광채 피부를 선사하는 '비디비치 스킨 일루미네이션 SPF 30 PA++'은 율품 가장 기대되는 메이크업 베이스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어린 피부를 연출하는 피부 보정 시크릿

빼어나게 예쁘지 않아도, 꾸미지 않은 수수한 모습에도 유독 빛이 나는 사람이 있다. 비결이 무엇일까 찬찬히 살펴보면 말갛고 투명한 피부에, 얼굴 전체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광채를 뽐내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여자들이 가장 원하고 꿈꾸는 부티 나는 '귀족 피부'다. 이처럼 요즘 '톤 케어(tone care)'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부티 업계는 피부 톤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젠 단순히 허얀 피부보다 잡티가 있어도 자연스러운 빛을 발산하는 피부가 건강하고 어린 피부의 기준이 된 것이다. 사실 피부 속부터 투명하게 빛나는 광채 피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나긴 여정과 노력,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꼼꼼한 스킨케어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습관도 완벽히 갖춰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포기하기는 이르다. 우리에게 메이크업이라는 쉽고 빠른 마법 같은 효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번 시즌 당신이 주목해야 할 광채 피부는 그동안 유행했던 물광, 꿀광 등의 각종 광 메이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히 광이 나는 피부가 아니라 고급스럽고 화사한 빛이 감도는 것이 포인트다.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비디비치는 노랑고 칙칙한 한국 여성의 피부를 화사한 핑크빛 귀족 피부로 톤 업시키고 고급스러운 광채를 선사하는 '스킨 일루미네이션 SPF 30 PA++'을 출시한다. 국내 최고의 메이크업 전문가이자 셀러브리티 메이크업의 선두자인 이경민이 만든 제품답게 여자들이 원하는 피부를 쉽고 빠르게 구현한다. 수많은 실전 경험으로 쌓은 메이크업 전문가로서의 특별한 노하우와 테크닉을 바탕으로 한국 여성 피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 피부에 착 밀착되는 지능적인 포뮬러, 피부에 안전한 최고급 성분만을 담았다. 특히 바르는 즉시 나타나는 피부 톤 보정 효과와 화사하게 빛나는 광채 효과는 비디비치 스킨 일루미네이션 SPF 30 PA++이 자랑하는 최대 강점이다.

## 톤 업 효과로 완성하는 핑크빛 광채 피부

비디비치 스킨 일루미네이션 SPF 30 PA++을 발랐을 때 주변에서는 "오늘따라 피부가 유독 좋아 보인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피부 상태가 건조할 때도 마치 숙면을 취한 듯 매끈하고 뽀얀 피부를 연출한다는 점에서 올해 출시한 다양한 브랜드의 베이스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장 후한 점수를 준 아이템이다. 이는 노란 기가 도는 한국 여성의 피부에 최적화한 핑크빛 텍스처로 피부를 투명하고 환하게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치 피부 속에서 조명을 켜 듯 피부 톤을 한층 살려주는데, 불규칙한 모양으로 코팅한 투명 톤 업 파우더가 빛을 여러 각도로 확산시키기에 가능한 일. 특히 일반 파우더를 사용하면 파우더 색이 그대로 발현되어 자연스럽지 않은 반면, 투명 톤 업 파우더는 피부 반투명증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해 마치 맨 얼굴처럼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광채가 감도는 피부 톤을 선사한다. 또 자체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산 세비에리아 잎 추출물과 빛의 반사를 극대화하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하이 블루밍 오일 성분을 함유해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수분을 머금은 듯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이 장점. 생크림처럼 부드럽고 풍부한 질감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 쫄쫄하고 매끈한 피부를 연출하고 피부에 가볍고 촉촉하게 밀착되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다. 밀리거나 과도한 광채 효과로 인위적인 느낌을 주는 다른 베이스 제품과 달리 자연스럽고 은은한 광채 효과를 자랑해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건강하고 화사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베이스로는 물론 프라이머, 하이라이터, 아이 브라이트너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비디비치 링클리스 컨실러를 함께 사용하면 잡티 없이 도자기처럼 완벽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30ml 5만2천원. 문의 080-516-1616 에디터 권유진



피부 내면의 유리 입자를 총총하게 깨워 빛으로 활짝 피어나는 블루밍 스킨을 선사하는 블루밍 에센스, SK-II 셀루미네이션 오라 에센스 (30ml 17만원대).



# blooming Essence

당신의 피부에 스스로 빛을 내주는 유리 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SK-II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블루밍 에센스'는 피부 내면에 잠들어 있는 유리 입자를 깨워 얼굴 전체가 빛으로 화사하게 피어나는 '블루밍 스킨'을 완성한다. 광채 에센스의 대명사로 불리던 셀루미네이션 에센스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광채를 넘어 블루밍 스킨을 실현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전형적인 미인도 아니고, 피부 결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예뻐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열렬한 사랑을 하고 있거나 매일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피부가 활짝 핀 듯 화사하고 아름다운 기운이 느껴진달까. 역지로 만든 광이 아닌 맨 얼굴이 지닌 건강한 윤기와 오라는 모든 여성들이 갈망하는 이상적인 피부의 표본이 되었다. SK-II는 지난 몇 년간 코즈메틱 마켓을 이끌어온 광채 트렌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전과 다른 강력한 빛이 필요하다고 판단, 새로운 개념인 '블루밍 스킨'을 제안한다. 블루밍 스킨은 얼굴 전체에 빈틈 없이 고르게 빛나는 상태, 즉 '빛나는 얼굴'이 아닌 '빛으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말한다. 알다시피 SK-II는 광채 트렌드에 일가견이 있는 브랜드다. 2010년 광채 키워드와 함께 선보인 '광채 에센스(셀루미네이션 에센스)'는 출시하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리며 화이트닝 시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블루밍 스킨을 완성하기 위한 신제품, '블루밍 에센스(셀루미네이션 오라 에센스)'는 바로 이 셀루미네이션 에센스의 후속작이다. 셀루미네이션 에센스가 피부 톤을 정돈하고 잡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블루밍 에센스는 피부 속에 잠들어 있는 유리 입자(Cell Luminous Factor)를 일깨운다는 획기적인 콘셉트를 반영했다.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인 '유리 입자'는 피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질층 바로 아래인 과립층에 존재하는데, 피부를 통해 들어온 빛을 넓고 화사하게 비추 얼굴 전체를 고르게 빛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입자(Cell Clarity Factor)는 피부 내면의 과잉 생성된 멜라닌과 같은 불순물을 조절해 피부 속 빛의 투과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새롭게 발견한 2개의 유리 입자와 클리닝 입자를 다스리면 피부에 반사판을 맨 듯 밝아지고, 피부 속 정제된 멜라닌과 같은 불순물은 감소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블루밍 스킨을 만들 수 있다.

## 얼굴 전체가 빛으로 활짝 피어내는 블루밍 에센스

SK-II 연구소는 앞서 설명한 유리 입자를 깨우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첨단 테크놀로지를 반영한 특별한 복합 성분인 '블루밍 오라 브라이트 각테일'을 개발했다. 브랜드의 상징인 농축 피페라™의 과잉을 기반으로 한 이 성분은 새로워진 플라워링 플럼 블러섬 추출물에 디-멜라노 P3C®, 픽셀 브라이트™를 더한 것으로, 특히 플라워링 플럼 블러섬 추출물은 피부 내면의 유리 입자를 깨워주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임상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잠들어 있는 유리 입자를 자극해 빛의 산란을 55.4%로 증가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리 광채가 난다고 해도 잡티가 있다면 칙칙한 빛이 섞여 있는 법. 디-멜라노 P3C®가 깨끗한 빛을 방해하는 멜라닌과 불순물을 말끔하게 해결해 투명한 마무리를 돕는다. 첫인상은 기존의 셀루미네이션 에센스라고 해도 믿을 만큼 보트의 형태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직접 써본 이들 이라면 달라진 포뮬러에 한 번, 흡수력에 또 한 번 놀랄 듯. 우유처럼 부드러운 질감인데 스키포이트로 얼굴에 떨어뜨리면 점성이 높아 쉽게 흐르지 않고 쫄쫄하게 붙어 있다. 이는 독자적인 테크놀로지로 완성된 리퀴드 에멀리언즈와 페네트레이션 부스터를 담아 피부 침투율을 높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몇 번만 두드리면 진어감 없이 흡수되어 매끈한 윤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라늄과 백단유, 그린 만다린 등 내린 식물 추출물이 어우러진 순한 로즈 향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셀루미네이션 오라 에센스를 사용한 25세부터 55세까지 여성들의 피부를 파악한 결과 일주일 사용 후 95%가 피부가 밝아진 것을 느꼈고, 1명 사용 후 80%가 맨 얼굴이 화사하고 투명해져 피부 내면에서부터 활짝 피어내는 빛을 느꼈다고 밝혔다. 세안 후 토너로 피부를 정돈하고 스키포이트 한 번 정도의 양을 덜어내 얼굴 전체에 퍼 바르는데, 기미나 주근깨 등 잡티가 신경 쓰이는 부위에는 2~3번 덧발라 가볍게 두드려주면 코팅한 듯 매끈한 광이 생긴다. 외출 시에는 SK-II '셀루미네이션 데이 서지 UV'와 함께 사용하면 자외선을 철통 방어해 눈부시게 빛나는 완벽한 블루밍 스킨이 완성된다. 30ml 17만원대. 문의 080-023-3333 에디터 이예진



블루밍 에센스와 페이셜 트리트리트 에센스, 화이트닝 소스 덤 리바이벌 마스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한 '블루밍 에센스 특별 세트'.



# the dream of Marrakech

국내 시장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입생로랑 코스메틱의 초대로 모로코 마라케시에 다녀왔다. 브랜드는 연일 새로운 제품과 화려한 이야기로 대중을 사로잡지만, 이러한 뜨거운 성공 속에서 입생로랑 코스메틱이 주목한 것은 입생로랑 디자인의 원천이자 영감의 오아시스, '붉은 도시-마라케시'였다.

## 입생로랑의 오아시스, 모로코 마라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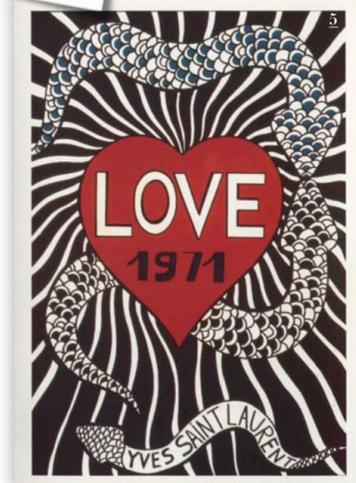
모로코, 그중에서도 고대 도시의 원형이 남아 있는 마라케시(Marrakech)에 간다는 것은 디자이너 입생로랑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마치 성지순례와 비교할 만한 일대 사건이다. 유럽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독특한 이국적인 장소, 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인 입생로랑이 제2의 고향이라 칭했을 정도로 사랑했던 선명한 빛의 도시, '붉은 도시-마라케시'에 가기 위해서는 앙스테르를 거쳐 20시간이 넘게 걸리는 여정을 거쳐야 한다. 유럽에서도 마라케시항 항공편이 있는 곳 은 드물고, 그마저도 하루에 한두 편 있을 뿐이다. 긴 비행 끝에 마라케시 공항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선명한 태양 빛이만 들어오면, 칼로 자른 듯 선명한 그림자의 아름다움에 "이국적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슬람교를 믿는 북아프리카의 초입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모슬렘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점, 이색적인 풍경과 마라케시의 전통 가옥이 만들어내는 붉은 도시의 벽역, 카페마다 차고 넘치는 달콤한 민트 티의 향기가 마라케시에 대한 기대감을 뜨겁게 달군다. "마라케시에 처음 왔을 때, 매우 특별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도시는 나에게 걸러를 가르쳤습니다"라는 입생로랑의 이야기를 직접 느끼고 싶다면 마라케시의 화룡정점, 메디나에 위치한 시장으로 향하면 된다. 색색의 화려한 향신료와 섬세한 무늬의 그릇, 세공품은 눈을 사로잡고 모로코의 전통적인 과감한 색상 배치가 매력된다. (아라비안나이트)를 연상케 하는 끝없이 이어지는 시장 골목을 가득 채운 수많은 색채들, 낮과 밤을 지나며 아프리카의 선명한 빛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입체미는 입생로랑의 디자인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모로코 마라케시 거리 곳곳에서 핑크, 블루, 그린, 그리고 바이올렛 색상의 카프탄(스매가 넓고 길이가 긴 이맘의 전통 의상)으로 대담함을 표현하는 인상적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화폭 속 그림처럼 보여, 들라크루아의 스케치를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모든 현대 여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룩과 20세기 패션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눈부신 컬렉션, 크리에이션을 선보인 입생로랑의 패션 전시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 입생로랑은 그의 오토 쿠르르 컬렉션 디자인을 위해 매년 6월과 12월에 2주간 마라케시를 방문했는데, 특히 모로코 사람들이 웃을 짓는 풍부한 방식은 입생로랑 컬렉션에 다양한 버전으로 등장했다. 2013년 생로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에디 슬리먼 역시 입생로랑이 사랑했던 모로코에 관한 영감과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 마조렐 가든에서 만난 입생로랑의 빛과 컬러들

입생로랑 코스메틱의 립 제품, 새도를 보던 항상 '이렇게 미묘한 컬러를 어떻게 찾아냈을까' 혹은 '대담한 컬러인데 막상 바르면 자연스럽게 다뤄진다'고 감탄하게 되는데, 입생로랑이 사랑했던 마조렐 가든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컬러들의 비밀이 그대로 담겨 있다. 1919년 프랑스 화가 자크 마조렐(Jacques Majorelle)은 마라케시의 구시가 지에 터를 잡고면서 아르데코 스타일의 아틀리에를 짓고 그 빌라 주변으로 다양한 나무와 식물, 새들이 동거하는 보태니컬 가든을 만들었다. 특히 전 세계의 이국적인 식물을 이점으로 가져오기 위해 식물학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국제적으로 교류했고, 이 열정으로 살아 있는 예술 작품, 마조렐 공원을 완성하게 된다.

여기에 화가의 터치가 더해지며 공간은 더욱 풍성해졌는데, 지금 마조렐 블루루 잘 알려진 울트라 머린 블루와 코발트 블루 컬러의 배합은 강렬하면서도 맑은 모로코의 아름다운 빛과 선명한 아름다움으로 승화했다. 햇살이 선명한 낮 동안 컬러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공간들이 해 질 무렵에는 부드러운 노닐로 변모한다. 그 어떤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독특한 선인장과 식물, 수백 종이 넘는 대추야자 나무의 푸름으로 가득한 이 정원이 '빛'의 터치로 변신하는 각기 다른 모습을 직접 보니, '빛'을 사랑하는 디자이너 입생로랑이 이곳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이 아름다움이 대체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1962년 자크 마조렐이 사망한 후 마조렐 가든이 폐허로 변하고 호텔로 개조한다는 소식을 들은 입생로랑과 그의 파트너 피에르 베르제는 1980년 마조렐 가든을 매입해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2010년 마조렐 가든을 피에르 베르제-입생로랑 재단이 소유하게 된 것이다. 마티스가 사용한 컬러들이 고스란히 존재하는 아름다운 오아시스 마조렐 가든을 통해 무한대의 영감을 얻은 입생로랑은 2008년 6월 1일 세상을 떠난 후 빌라 오아시스의 로즈 가든에 뿌려졌고, 마조렐 가든에 영원히 잠들었다. 모로코 항해의 지평에서 가져온 고대 로마 시대 기둥으로 만든 가늌비를 공원 내에 세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입생로랑과 그의 작품을 기억한다. 입생로랑 코스메틱의 CEO 스테판 벤 지역시 이곳을 이변에 처음 찾았다고 입생로랑의 묘비를 보며 많은 영감을 받았으며 이곳을 방문한 것 자체가 입생로랑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한다. 입생로랑은 1970년부터 매해 연말 모로코에서 신년 카드를 디자인해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이 감각적이고 유니크한 러브 카드를 전신한 '러브 갤러리'도 마조렐 가든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마라케시의 아름다움은 빛깔들을 입생로랑의 메이크업 컬렉션 아이템에 담아냈는데, 블루 마조렐 컬러가 가득 담긴 네일 래커, 이국적인 식물과 나무 사이로 비치는 눈부신 빛을 담은 아이셰도 팔레트, '빛의 영감'에서 뽐낼 수 없는 전설적인 뷰티 아이콘이자 '빛의 마법사'인 매직 펜 푸쉬 애플라가 마라케시의 아름다움을 얼굴에 수놓는다.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미지의 장소, 자신의 예술적 고향을 찾아 헤맨다. 그들이 상상하는 영감의 세계는 신기루처럼 상상 속에만 나타났다가 사라진곤 하는데, 입생로랑은 마라케시라는 꿈의 공간을 만났고, 열렬히 사랑했다. 예술의 오아시스로서 모로코, 마라케시와 수많은 교감을 통해 아름다운 디자인을 남겼다. 모로코의 색채를 담은 입생로랑의 삶이 뷰티 아이템으로 재해석되어 내 얼굴에 다시 피어난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경험이 될 것이다. 에디터 **배미진**



1 입생로랑이 살았던 마조렐 가든 안의 빌라 오아시스 전경. 입생로랑은 1980년 청원을 매입한 후 마조렐 가든을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2 2008년 6월 1일 세상을 떠난 입생로랑은 재가 되어 빌라 오아시스 가든에 뿌려졌다. 3 입생로랑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준 마조렐 공원의 파격적인 컬러 조합. 선명한 태양 빛으로 색채의 아름다움이 더욱 부각된다. 4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남은 디자이너 입생로랑의 모습. 5 입생로랑은 매년 마라케시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낼 신년 카드를 'LOVE' 카드를 만들었다. 다양한 디자인과 과감한 디자인, 색채의 매력을 엿볼 수 있다. 6 빛의 예술로 완성한 모로코의 일상적인 풍경. 모로코의 선명한 빛은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7, 8 마라케시에서 영감을 받은 선명한 컬러의 입생로랑 메이크업 컬렉션.

# skin light Reflection

화이트닝으로 시작해 브라이팅을 넘어,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라이트닝으로 진화한 2014년 YSL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라인. 매직 펜 푸쉬 애플라에서부터 이어지는 입생로랑의 혁신적인 빛의 혁명, 그 특별한 라이트닝(lightening) 케어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마법의 빛 한 방울, 4-in-1 멀티 광채 세럼

최근 엄청난 인기를 누리 드라마에서 여배우가 바르고 나와 유명해진, 일반인들이 립스틱 컬러 변화까지 외출 정도로 뉴스에 오르내린 전설적인 립스틱을 탄생시킨 브랜드가 바로 YSL이다. 전 세계적으로 풀질 열풍을 일으킨 립스틱 덕분에 럭셔리 코즈메틱 브랜드의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러한 브랜드의 지력은 메이크업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트렌드 세터들에게 인정받은 것은 물론 유럽과 일본 시장에서 놀라운 판매를 보이고 있는 YSL의 스킨케어 라인이 메이크업 제품만큼이나 주목받는 이유는 YSL이 빛의 전문케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화이트닝을 넘어서 브라이팅, 이제는 라이트닝이라는 트렌드를 제시하며 YSL이 선보이는 라이트 크리에이터 라인은 출시 22주년을 맞은 매직 펜 컨실러 푸쉬 애플라에서 이어진 빛에 관한 철학과 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하게 된 라이트닝 전문 라인이다. 마법의 빛 한 방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만큼 단순히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투명함, 스스로 뽐내는 속광, 자연스럽게 광채가 어우러지는 피부를 만드는데 것이 목표다. 나이가 들어 자외선과 같은 외부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생긴 노란 기, 붉은 기, 다크 스팟이 피부 본래의 빛을 가려 칙칙해지기 때문에 YSL은 단순히 잡티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착안해 혁신적인 4-in-1 멀티 기능과 케어를 선사하는 핵심적인 제품으로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세럼을 선보인다. 피부결을 개선하고 탄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크 스팟을 완화해 자연스럽게 광채까지 부여하는 토털 케어를 고안한 것이다. 맑고 투명한 세럼 텍스처는 마치 물 흐르듯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드는데, 이 텍스처가 바로 유효 성분의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바르는 순간 다른 세럼과는 전혀 다른, 톡 톡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텍스처는 광장히 매력적이다.

## 보습과 영양까지 이상적인 라이트닝, 멀티 광채 젤 크림

세럼에 더해 더욱 완벽한 라이트닝을 위한 아이템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멀티 광채 젤 크림이다. 화이트닝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수분감이다. 일단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화이트닝 유효 성분이 더 빠르게 확실하게 흡수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분 케어 기능까지 완벽하게 갖춘 화이트닝 제품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수많은 브랜드들이 건조하지 않은 화이트닝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촉촉한 화이트닝 스킨케어'라 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수분 화이트닝은 드물기 때문이다. 피부의 빛과 결을 결정하는 것이 수분 함유량이기 에 수분은 안티에이징과 화이트닝을 넘어서, 스킨케어의 기본이자 결정적 조건이다. 이렇듯 지금까지 화이트닝 스킨케어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YSL은 올해 새로운 화이트닝 크림을 선보이며 '수분과 영양 케어에 중점을 두었다. 화이트닝의 효과는 그대로 담고 수분감과 영양까지 더한다면 YSL이 추구하는 피부 속부터 빛나는 '속광', 스스로 발현하는 '라이트닝'의 콘셉트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탱글탱글한 크림 텍스처는 여타 제품들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탄력감 넘치는 제형은 얼굴 피부에 닿자마자 놀라울 정도로 촉촉하게 변한다. 화이트닝 기능까지 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즉각적인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나다. 혁신적인 차세대 스킨케어 성분인 글리칸액티브™를 함유해 피부 속 빛 '속광'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눈부신 빛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된 최상의 피부를 선사한다. 잃어버린 얼굴의 빛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는, 눈부신 광채와 투명하고 화사한 피부를 원하는 여성이라면 YSL 라이트닝 케어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세럼 30ml 15만원대,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크림 젤 50ml 15만원대. 문의 080-347-0089 에디터 **배미진**

# editor's Pick

매달 수많은 뷰티 제품을 접하는 뷰티 기자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평소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는가'이다. 그래서 공개한다. <스타일 조선포보> 기자들이 선택한 뷰티 아이템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로스틴 리필리브 파워 앰플 6주간 꾸준히 사용하는 프로스틴 화이트닝 앰플, 일단 100% 무지방제, 유해 성분 0%라는 콘셉트와 냉정고에 넣고 사용하는 신선한 냉장 화장품이라는 점에서 믿음이 간다. 브랜드 핵심 제품인 리필리브 스킨 10병을 사용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니 기대해도 좋다. 8mlx6 15만원. 문의 080-023-7007 *\_by 에디터 배미진*

**샤를로 블러쉬 크림** 샤를로 시안스라는 핑크빛 레드 컬러의 크림 블러셔로, 못지 않고 자연스러운 홍조를 연출해 생기가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톡톡 발라 준다. 차크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입술 중앙에 물들이듯 바른 후 투명 립글로스를 발라주면 청순하고 소녀 같은 립 메이커업을 완성할 수 있다. 2.5g 5만원. 문의 080-332-2700 *\_by 에디터 권유진*

**지미추 클렌시 렐리프 클림** 뿌리는 순간 색서하고 매력적인 쿼터 핀으로 변신 클림의 내온 리프트를 향상시킨 바이올렛 컬러의 보습은 음악과 클림으로 유명한 런던을 연상시킨다. 피드 음악과도 같이 육감적이고 색서한 울트라 모던 플로럴 프루티 머스키 향조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색서함을 유지해주는 비장의 무기다. 60ml 9만9천원. 문의 080-800-8809 *\_by 에디터 권유진*

**크리니크 래쉬 퍼워 마스크라** 클렌저를 사용하지 않고도 따뜻한 물만으로 깨끗이 지워지는 아주 간편한 마스크라. 쉽게 지워지는 만큼 반지리 입몰이 염려했는데, 늦은 오후가 되어도 반지리 입몰을 강력했다. 아시아인의 얼굴형에 맞게 개발한 브러시로 바르기 어려운 부위까지 피부에 닿아지지 않고 꼼꼼하고 깔끔하게 바를 수 있다. 6g 3만4천원. 문의 02-3440-2773 *\_by 에디터 권유진*

**비디비치 엑스트라 엘링 밤**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해결되지 않던 피부 건조를 완화해준 천연 오일 밤. 자기 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손으로 부드럽게 녹여 버려 10년 후에도 오일과 왁스로 이루어진 내추럴 코팅 마이 피부의 수분을 꼭 잡아주어 다음 날 아침 윤기가 촉촉하게 흐르는 피부를 만날 수 있다. 10g 4만2천원. 문의 080-516-1616 *\_by 에디터 권유진*

**글레드보 보메 로씨옹 토너** 모든 스킨케어 제품을 추천하고 싶은 정도로 기초 제품에 강한 글레드보 보메의 토너. 거의 에센스 정도의 촉촉함과 맞먹는다고 할 정도로 피부 밸런스를 잡아주는 제품이다. 170ml 15만원. 문의 02-3438-6032 *\_by 에디터 배미진*

**프래쉬 슈가 체리 립 트리트먼트** 5년째 애용하고 있는 립 트리트먼트. 허니, 패시, 베리, 페랄, 로제, 플럼 컬러에 이어 최근 겨울에 출시한 체리 컬러까지, 벌써 6번째다. 천연 보습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해 보습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 예쁘고 자연스러운 컬러까지 더해 데일리 립밤으로 기어 최고라고 할 수밖에. 4.3g 3만4천원. 문의 080-822-9500 *\_by 에디터 권유진*

**아베다 스트레스-픽스 바디로션** 이틀만으로도 율령이 되는 이 제품은 풍부한 라벤더 향으로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흡수 속도가 워낙 빨라 바르면 움직여야 하는 아침 시간에 매우 유용하다. 200ml 4만5천원. 문의 02-3440-2905 *\_by 에디터 이예진*

**SK-II 스킨 파워 크림** 딱딱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풍부한 텍스처에 푹 빠져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하는 크림이다. 느린 기법지만 한편 바르면 촉촉한 영양을 공급한 것처럼 든든하다. 여러 번 덧바른 후 메이크업을 해도 밀리지 않는다. 50g 12만9천원. 문의 080-023-3333 *\_by 에디터 이예진*

**엘비타 클로릴 부케 라이트 클렌징 폼** 부드러운 거품이 미세한 부분까지 깔끔하게 클렌징할 수 있는 오가니 폼 클렌징 폼. 로즈 플로럴 워터 성분을 함유해 클렌징한 후에도 땅기지 않는다. 프랑스 에코시트 인증을 받았을 뿐 아니라 99% 천연 성분, 21% 유기농 인증 성분을 사용해 만들 수 있다. 155ml 3만9천원. 문의 02-3014-2997 *\_by 에디터 배미진*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H 수메라이 래디언스 세럼** 이렇게 쪼꼬만 게 왜 이리 비싼가 싶었는데 써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광명적인 잔드하게 느껴지는 점성제 주주처럼 광택이 돌아 텍스처에 엄청난 광을 불렀음을 짐작케 한다. 사용한 지 일주째인데 한 병을 다 쓰면 탁월한 안색을 개선하고,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30ml 35만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이예진*

**입생로망 글로스 볼림메 틴트 글로스** 야배우 립스틱으로 최근 메이크업 트렌드를 강타한 입생로망의 새로운 틴트 글로스. 화사하고 밝은 색감이 어울리는 봄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다. 끈적이고 무거운 립글로스 대신 가볍고 산뜻한 텍스처를 담았다. 23가지의 다양한 색도 중 선택할 수 있고 브랜드 로고를 새긴 패키지도 매력적이다. 6ml 3만9천원. 문의 080-347-0089 *\_by 에디터 배미진*

**룩사몽 이모르텔 다비안 크림** 자중해 코르사카 생에서 자라는 불멸의 꽃 이모르텔의 핵심 성분만을 담아 프랑스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모르텔 크림. 극찬을 받은 룩사몽의 베스트셀러 라인으로 특히 크림은 그 효과가 탁월하다. 50ml 15만원. 문의 02-3014-2965 *\_by 에디터 배미진*



# Perfect lightening duo

화이트닝 스킨케어 뒤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은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베이스와 메이크업 제품이다. 이미 20여 년 전에 얼굴에 빛을 주는 혁신적인 아이템, 푸쉬 애플라로 마법을 선보인 바 있는 YSL은 올해 가장 눈부신 피부 빛을 살려주는 라이트닝 CC크림과 라이트닝 컴팩트를 선보인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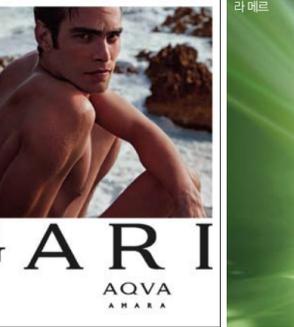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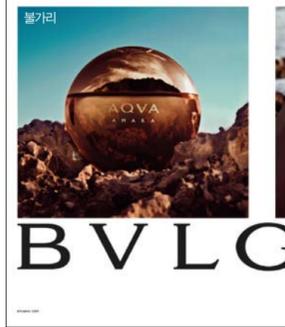


**얼굴빛이 달라진다, 라이트닝 CC크림**  
 YSL에서 '빛'은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브랜드의 사명이자 철학이다. 이 때문에 얼굴에 빛을 밝히는 전설적인 뷰티 마스터피시이자 뷰티 아이콘, '푸쉬 애플라'라는 매직 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빛의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 전설적인 빛의 매력은 신제품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YSL 뷰티에서 메이크업 아이템은 굳이 다른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신뢰가 높은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내로라하는 스타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입소문 덕분에 나날이 놀라운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선보인 안티에이징 리퀴드 파운데이션도 출시 되자마자 전문가들에게 극찬을 받았을 정도다. 이렇듯 탄탄한 베이스 라인을 갖춘 YSL이기에 CC크림에 대한 기대도 높는데, 가운데 피부 컬러를 다시 세팅한다는 의미의 컬러 리-세팅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건강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제품을 선보인다. 어둡고 칙칙한 피부 톤과 피부결, 잡티를 즉각적으로 보정해주는 순수 광채 CC크림은 다양한 피부 톤에 맞게 세 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먼저 피곤해 보이고 창백한 피부라면 화사한 톤의 로즈 컬러가, 피부 톤이 노랗고 혈색이 좋지 않다면 내추럴한 광채를 선사하는 라벤더 컬러가 좋다. 고르지 않은 피부 톤을 보정하고 싶다면 건강하고 우아한 골드빛 광채를 선사하는 에프리콧 컬러를 사용하면 된다. 섬세한 빛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해 마치 화장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고 맑은 피부 톤을 원한다면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CC크림을 선택하기를 추천한다.

**완벽한 민낯처럼, 라이트닝 컴팩트**  
 컴팩트가 피부결을 감추고, 얼굴을 더 칙칙해 보이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최근에 새롭게 선보이는 컴팩트들은 더 가볍고 산뜻하고, 자연스러운 텍스처를 선보이는데 이러한 컴팩트의 대표 주자가 바로 YSL의 라이트닝 컴팩트다.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라인에서 선보이는 컴팩트는 메이크업이 아닌 마치 빛을 바른 듯, 눈부시고 화사한 피부로 완성해준다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텍스처가 더없이 가볍다. 베이스 메이크업을 한 후 바로 발라도 전혀 들뜨지 않고 가볍게 깃털처럼 얼굴을 감싼다는 게 사용해본 사람들의 평이다. 새롭게 출시한 CC크림과의 궁합도 뛰어나다. 피부 전체를 보호하듯 감싸는 순수 광채 라이트닝 CC크림을 바른 후 컴팩트로 유분 기를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치 민낯 같은 자연스러운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것. 입체적으로 빛을 반사해 피부결을 더욱 좋아 보이게 하는 스킨 라이트 콤파렉스가 그 비결이다. 피부 본연의 빛을 극대화해 순수 광채 피부로 완성한다는 YSL의 슬로건을 그대로 화장품으로 구현한 것이다. 공기처럼 산뜻하게 주름과 모공, 잡티, 칙칙함을 커버하는 부드러운 미세 수분 파우더를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여성들에게 어울리는 여섯 가지 컬러로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넓다. CC크림과 컴팩트 제품 모두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화이트닝에 신경 쓰는 여성은 전방위로 활용할 수 있다.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CC크림 SPF 35/PA+++ 40g 7만원.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컴팩트 SPF 32/PA+++ 11g 7만9천원. 문의 080-347-0089 *\_by 에디터 배미진*

# SHOWROOM

BEAUTY



**설희수 퍼펙팅 쿠션 뉴 컬러** 설희수가 카바rier과 보습력을 겸비한 퍼펙팅 쿠션에 새로운 색상을 추가로 선보인다. 개개인의 피부 톤에 어울리는 컬러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늘어면서 기존 출시 컬러인 인 미디엄 핑크(21호), 미디엄 베이지(23호)에 더 밝은 라이트 핑크(13호)와 가장 어두운 색상의 딥 베이지(25호)를 더해 총 47가지 색상으로 선보인다. 저외선 차단, 미백, 증류 등을 케어하는 3중 기능성과 아데노신 성분, 콜라겐 분해를 방지해주는 행인 오일을 함유해 오랜 시간 메이크업 없는 촉촉함을 남긴다. 문의 080-023-5454

물을 조절하는 클리닝 인자를 케어한다는 콘셉트로, 밝고 환한 피부 톤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블루밍 스킨을 선보인다. 3월 23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문의 080-023-3333

**페로 솔레이드 제이드** 페로에서 브랜드의 첫 번째 향수, '솔레이드 제이드'를 출시한다. 페로는 프랑스 출신 루이 페로가 창립한 브랜드로, 색채 감각이 뛰어난 디자인이 화가로 유명하다. 시카, 레몬 등이 어우러진 상큼한 톤 노트와 샌달우드, 시더우드의 베이스 노트가 은은한 향을 남긴다. 빛나는 태양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과 싱그러움 연꽃빛의 독특한 보틀 역시 매력적이다. 문의 02-3443-5060

**에스티 로더 시아비 화이트 HD 어드밴스드 스팟 코렉티브 콜렉션** 에스티 로더는 집지 없는 밝은 피부를 원하는 아시아 여성을 위해 새로운 시아비 화이트 HD 콜렉션을 선보인다. 독자적인 HD-90 복합체의 강력한 파우더 UVA와 UVB, 스트레스, 노화, 환경 공해 등에 의해 발생하는 잡티와 색소침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진보한 화이트닝 시스템이 착색된 안색을 밝혀준다. 모이 소르션을 비롯해 데이 & 나이트 크림과 자외선 차단제, BB크림 등으로 구성했다. 문의 02-3440-2772

**인생로랑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CC크림 & 캠퍹트** 인생로랑이 피부에 화사한 광채를 선사하는 라이팅 스킨케어 라인인 퓨어 스킨 라이팅 듀오를 출시한다. 혁신적인 컬러 리세팅 테크놀로지를 담아 어둡고 칙칙한 피부 톤-피부결-잡티를 즉각적으로 보정하는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CC크림'과 피부 본연의 빛을 극대화하는 스킨 라이트 콤플렉스로 마치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듯 투명한 마무리를 돕는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캠퍹트'로 구성했다. 문의 080-347-0089

**라 메르 리프팅 퍼밍 마스크** 라 메르가 리프팅 퍼밍 마스크를 출시한다. 리프팅 세럼의 핵심 성분인 리프팅 퍼먼트와 브랜드의 대표 성분인 미라클 보르소가 피부 밀도를 총총하게 해주고 탄력을 끌어올려 얼굴 라인을 입체적으로 만든다. 얼굴은 물론 데콜레타지까지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문의 02-3440-2775

**SK-II 블루밍 에센스 특별 세트** SK-II에서 신제품 블루밍 에센스 출시를 기념해 '셀룰라미네이션 오라 에센스'와 '피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화이트닝 스킨 케어 리미티드'를 패키지로 구성한 블루밍 에센스 특별 세트를 선보인다. 블루밍 에센스는 피부 내면의 유리 인자를 깨워 과도한 멜라닌과 같은 불순

**비디비치 스킨 일루미네이션 SPF 30 PA++** 비디비치에서 스킨 일루미네이션 SPF 30 PA++을 출시한다. 투명한 톤 업 파우더가 피부 속 광채를 살려 칙칙한 안색을 핑크빛으로 물들이고, 생크림 질감의 텍스처가 피부에 수분을 머금듯 은은한 광채가 돌게 한다. 다양한 베이스 제품과 섞어 바르기 편리하며, 프라이머나 하이라이터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문의 080-516-1616

**디올 프레스티지 화이트 컬렉션 UV 프로텍션** 디올이 '프레스티지 화이트 컬렉션 UV 프로텍션'을 선보인다. 로즈 드 그랑빌 벤틀 성분은 피부 속 세포를 보호해 8시간 동안 UVA와 UVB를 완벽 차단하는 '사틴 브라이트닝 UV 베이스', '사틴 브라이트닝 UV 베이스 플레미쉬 밤', 콤팩트 타입의 '사틴 브라이트닝 콤팩트 UV 프로텍션 플레미쉬 밤' 등 3가지 제품으로 구성했다. 문의 02-3438-9631



**나노드론 공기청정기** 독일 브랜드 나노드론이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공기청정기를 소개한다. 정전기학적인 분리 원리를 바탕으로 공기를 분리하고 그 속의 초미세 입자를 묶어내는 새로운 방식으로 초미세 먼지와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등 유해물질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흡사아터 스피커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디자인은 품격 있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적합하다. 문의 02-3444-0288



**로얄 살루트 아랍어미리트 네이션스 컵** 로얄 살루트가 후원하는 2014 로얄 살루트 아랍어미리트 네이션스 컵 대회가 두바이 데저트 팜 리트리트(Desert Palm Retreat)에서 열렸다. '여왕의 위스키'로 불리는 로얄 살루트와 폴로의 만남으로 화려함을 더한 로얄 살루트 월드 폴로는 영국,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5개 대륙에 걸쳐 토너먼트를 펼치고 있다. 문의 02-549-3135



**도무스 디자인 피암 리얼티 테 테이블** 도무스 디자인에서 3월 15일부터 이탈리아의 유명 브랜드 피암(DIAM)의 리얼티 테 테이블을 특가 판매한다. 간결한 디자인의 리얼티는 유리란의 깨끗함과 청량함이 매력적이다. 특히 피암이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인 곡면 유리 방식(curved-glass design)으로 제작해 투명하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갖추었다. 문의 02-6091-3295

LIFESTYLE

JEWEL



**타피니 하모니** 타피니에서 하모니 링을 새롭게 선보인다. 중앙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주얼의 밴드 부분에도 다이아몬드를 더해 화려함을 강조했다. 심플한 플래티넘 하모니 밴드 링에 다이아몬드 밴드 링을 가드 링으로 함께 착용하면 더욱 볼륨감 있게 연출할 수 있다. 3월에는 타피니의 다양한 웨딩 링을 한정에서 만나보고 상담받을 수 있는 타피니 브리얼 페어 행사를 전매장에서 진행한다. 문의 02-543-7685

**브레게 문페이즈 페어** 브레게는 웨딩 시즌을 맞아 문페이즈 페어 워치를 소개한다. 39mm, 36mm 지름으로 선보이는 페어 워치는 18K 로즈 골드 케이스에 클래식한 그랑 피(Grand Feu) 에나멜 다이얼을 적용했으며, 여성용 시계에는 베젤을 따라 96개의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장식했다. 중앙에 시, 분, 세컨드 핸즈를 장착해 2개의 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데, 문페이즈는 12시 방향에,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는 3시 방향에 위치한다. 문의 02-2118-6480

**타피니 PRC200 크로노 퀴츠 리미티드 에디션** 타피니에서 2014년 인천아

시간계임을 기념하는 PRC200 크로노 퀴츠 컷을 워치를 한정 출시한다. 특수 아랍의 슈퍼 루비노아 이름 속에서도 기록성이 뛰어나며, 10시간 2시 방향에 위치한 2개의 크로노그래프 커운터, 분침의 트랙 등은 시간계임을 로고에 표시된 태깅을 상징해 특별함을 더했다. 여성용 모델 제품 뒷면에는 아산 개인 로고와 음각되어 있다. 문의 02-543-7685

FASHION

**펜디 2014 S/S 컬렉션** 펜디의 2014 S/S 컬렉션은 정보학(informatics)에서 영감을 얻은 그래픽적인 모티프에서 출발한다. 레이어드 커팅을 통해 얇고 가벼운 오감 소재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봄과 어울리는 상큼한 파스텔 컬러부터 밤과 어울리는 블루와 블랙까지 다양한 컬러로 구성했다. 눈속인 효과를 주는 더블 힐과 그래픽적인 프린트를 다룬 투 주르 백, 실루엣만으로 전체성을 드러낸 바게트 백 등도 주목받았다. 문의 02-2056-9021

**버버리 스몰 체크 엠보싱 오차드** 버버리에서 이번 시즌 새롭게 거듭난 오차드 백을 선보인다. 체크 패턴을 엠보싱한 독특한 그래픽 디자인의 소재로 볼륨감을 살렸으며, 빈티지 여행 가방을 연상시키는 구조적인 형태의 볼링 백 디자인이 특징이다. 장인 정신이 깃든 핸들과 금속 하드웨어가 돋보이며, 탈착 가능한 슐트 스트랩과 볼드한 지퍼, 가죽 가방 태그로 완성도를 높였다. 문의 02-3485-6583

**클롬보 비아 델라스피가 웬스트리트 소프트 미니 백** 클롬보 비아 델라스피가에서 '웬스트리트 소프트 미니 백'을 선보인다. 이는 1962년에 탄생한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웬스트리트 백을 재해석한 것으로, 트렌드에 맞게 사이즈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백의 밴드 핸들을 가죽 핸들로 교체하고 탈착 가능한 슐트 스트랩을 더해 실용적으로 완성했다. 산명량 레드 컬러를 비롯해 오렌지, 블루, 그린, 바이올렛 등 다양한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70-7130-9200

**아노나 제로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아노나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스테파노 필라와 함께한 첫 번째 컬렉션인 '제로 컬렉션(Zero Collection)'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패피리', '파핀', '칼라'를 주제로 한 이번 시즌 컬렉션은 여름을 위한 컬러와 소재로 기묘한 캐시미어, 6개월 이하의 어린 양털로 만든 '쿠트 모에어' 소재의 재킷, 아우터, 팬츠가 주를 이룬다. 현대적면서도 개성있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슈즈와 가방 등은 실용적인 부분이 강조되었다. 문의 02-2240-6521

**벨루티 5 포켓 데님 팬츠** 벨루티가 2014 S/S 시즌을 맞아 열 라인 과 5 포켓의 핸드 스티치가 돋보이는 '5 포켓 데님 팬츠'를 선보인다. 벨루티 남성복 전 라인에서 볼 수 있는 가죽 디테일은 소가죽으로 만든 라벨과 주머니 탭에 적용해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언드빌과 실크 혼방 소재로 금속 염색 처리한 특별한 가공으로 세탁 후에도 변색되지 않는다. 압구정동 갤러리1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47-1895

**보티가 베네타 화이트데이 선물** 보티가 베네타에서 화이트데이를 위한 선물 아이템을 제안한다. 모노클에서 영감을 얻은 반짝이는 스피어 장식이 특징인 스피어 보더 백과 닷 클러치, 마드라스 스피어 클러치백으로 구성했다. 스키어모인 이루어진 볼드한 네크리스와 브랜드를 상징하는 버터플라이 모티브의 인트레치 이튼 아르젠토 주얼리 컬렉션 등도 준비되어 있다. 문의 02-3438-7682

**우영미 피리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디자이너 우영미의 WOYOUNGM이 파리 최고급 패션 문화의 거리를 소담하는 루 세인트 클로드(Rue Saint Claude) 거리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패션과 아트를 접목한 우영미만의 색깔에 파리자랑 특유의 감각적인 분위기를 더해 갤러리에 방문한 듯한 공간을 완성했다. 오프닝 파티에는 유명 스타일리스트 캐서린 바바와 디자이너 줄리아 데이비드 등 패션 관계자와 유명 인사 총 3백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의 02-515-8897

**발리 국내 리몬칭** 스위스 브랜드 발리가 국내 패션 기업 한성과 손잡고 리몬칭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의 남성 컬렉션 중심에서 여성 라인을 강화하며, 클래식을 모던

**프라다 더블레 백** 프라다에서 2014 S/S 시즌을 맞아 새로운 더블레 백을 출시한다. 안감과 걸감 이 모두 가죽으로 이루어졌지만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가볍고 싹스한 컬러가 특징. 옐로, 그린과 같은 강렬한 색부터 페일 핑크, 베이지, 스카이 블루 등 다양한 컬러 팔레트를 자랑한다. 더블 백의 컬러와 안감, 가죽 트림의 컬러 조합도 주목할 만하다. 자석으로 여닫을 수 있는 플랩 포켓을 장착해 수납이 편리하다. 문의 02-3218-5331

**후고 슬림 핏 슈트** 후고 보스의 칸템페라리 라인 후고에서 2014 S/S 시즌을 위해 슬림한 라인의 슈트를 선보

**보티가 베네타** 보티가 베네타

**우영미** 우영미

**버버리** 버버리

**클롬보 비아 델라스피가** 클롬보 비아 델라스피가

**발리** 발리

**아노나** 아노나